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이 강 혁
편 집 인 겸 주 간 기 연 수
편 집 장 노 재 봉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청산리 산19)
인 쇄 인 김 상 영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604호 1993년 5월 4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이숙경 재단 이사장의 총장에 보낸 서한 분석

재단·공개서한, 위기국면 무마하기 위한 입막음용

미네르바가 온갖색의 꽃을 피우며 눈을 뜨는 새봄을 맞은 서울캠퍼스에서는 '외대발전'이라는 외대인의 꿈과 소망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모교발전에 대한 일망으로 시작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외대발전 요구안에 또다시 대학당국과 재단의 태도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새출발'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3차에 걸쳐 요구한 외대발전에 대한 공개답변이 미비하자 박승준전무이사의 전면퇴진과 재단대개혁부생을 선포하고 나선데서 표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서울캠퍼스 중기투자방안수립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과 박승준전무이사의 재산공개, 재산이사회의 활동내역공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3차요구안이 대학당국과 재단의 답변에 반영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본적 투자재정 늘리지 않는 이상 양캠퍼스 균형발전은 요원

재단의 답변은 지난 21일(수) 재단 이숙경 이사장이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서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용인캠퍼스에 집중투자한 관계로 서울캠퍼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균형발전의 차원으로 서울캠퍼스에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 실행방법으로 학교소유의 자곡동부지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학교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과 대원빌딩을 효율적으로 이용, 수익을 학교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임야와 전남목포의 대지, 이문동의 대지를 매각하여 학교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강원도 대관령의 동원농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한은 학생들의 모교발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먼 내용이어서 학생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학생회에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요구한 이문동 중기투자방안에 대해 재단이 총학생회측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우회적 형식으로 학생처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는데 대해 학생들은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재단이 학생들의 요구가 '외대주인의 하나인 학생들 요구안'이라기 보다는 교육과 지도의 대상으로 대학당국이 다스려야 하는 분별없는 객체가 빌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긴다는 의심을 낳고있다.

구체적으로 재단의 서한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용인캠퍼스에 집중투자한 관계로 서울캠퍼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대학당국이 근본적으로 투자재정을 늘리지 않고 서울캠퍼스에 투자를 중대시킬 경우 용인캠퍼스가 또한 서울캠퍼스에 무지되는 재원만큼 투자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양캠퍼스에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인 이문동주위의 1만평 매입과 실내체육관 건립, 건물증축에 관해서는 단지 서한에 건물의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타당성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그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약 5백억 가량의 재원확보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단소유의 작은 대지와 임야를 매입해 들어오는 비용 12억원을 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학교발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는 명확히 학교소유의 자곡동부지를 캠퍼스이전부지로 확정하지는 것이다. 사실 단순히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 처리의 수위가 수익용건물을 지어 학교에 그 수익금을 투자하는 방법, 매각을 통한 방법, 캠퍼스이전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호해서 학교측이 지의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원빌딩과 동원농산의 경우 재단에서 제시한 지료상의 문제점인 동원농산의 수익금이 전혀 없다(?)는 부분과 대원빌딩 관련자료의 수치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규명이 먼저 선행된 상태에서 수익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차요구안에서 재단이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박이사의 재산공개와 재단이사회의 활동내역공개요구는 전혀 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문동 중기투자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재원확보책 제시안돼

이것은 교육자로서 학교재단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교육이념을 확인하고 재단이 진정 올바른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분명히 공개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재단의 공개서한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현재의 위기국면을 무마하기 위한 입막음용, 보여주기식의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재단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총학생회에서는 재단 불신임투표를 5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풀수있는 깊은 재단의 형식적 대응에 지치고 분노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학교발전에 대한 보다 성의있는 의지표현 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일부 학생들이 그간 함의서이행 투쟁, 중장기발전요구에 대해 보여준 무관심에, 총학생회 또한 이제까지 사업에 대해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외대발전 운동이 일각에서 '우리학교만 일류대학 되자'는 식의 학교 이기주의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듯이 대학이 사회와 분리된 특수한 공간이 아니라면 대학사회와 학생들의 의식속에서 날로 영향력을 높여가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학생회가 물리적, 이념적 지도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숙경 재단이사장 서신전문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공사다망하신 총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단에서는 외대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을 작성하는데 즈음하여, 내외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명문 종합대학교로서 제2의 도약을 확실히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재단의 발전의지의 일단을 밝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향후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동안 용인캠퍼스에 대한 집중투자로 서울캠퍼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 중에는 양 캠퍼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환영하시어 서울캠퍼스에서도 건물의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타당성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단에서는 학교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단이 소지해 왔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최각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자곡동 512의 276필지(705.276㎡)의 대지 및 임야는 현재 트지사용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재단은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학교발전의 목적에 한당하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8의 대원빌딩(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8.944㎡)의 경우는 앞으로 장기간 학교재정을 위한 주수입원으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동 빌딩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생되는 수익은 학교에 계속 전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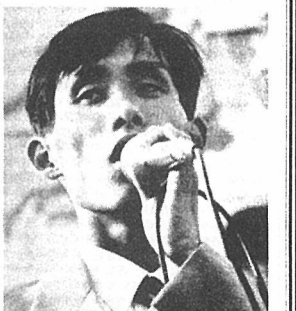
둘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25-1(39.670㎡)의 임야, 전남 목포시 용당동 967-80(2.040㎡)등의 대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7-23(112㎡) 의 대지 등은 매각하여 학교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고서면 간성읍 광교리에 소재한 동원농산은 조림단지(잣나무의 3종, 총 2,833,230본)와 고심목장(초지 287ha, 사료포지 29ha, 유우 173두, 우사 및 창고, 기계기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부지단계이나 장래에는 학교재단의 수익원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의 평가교수단이 그곳을 방문하시어 재단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원농산에 대한 관리방안(부지확대 혹은 처분 등 포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작하시어 학교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한 흡족한 계획을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장님의 건안하심과 외대가족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재단전무이사 퇴진과 이문동 중기투자 계획 전면수용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한 서울캠퍼스 이철훈 총학생회장을 만나



서울캠퍼스 붉은광장앞에서 지난 4월 23일(금)부터 5월1일(토)까지 일간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눈물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맞서 눈물로 일어서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 보았다. 그는 더이상 물러설수 없다며 학생들이 외대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훈(서양·영어4) 군이다.

왜 인간의 극기를 시험한다는 어려운 단식에 돌입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캠퍼스 7천 학생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외대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외대가 겪고있는 시련을 함께 하며 외대사랑을 몸으로 체험해 무관심한 재단과 대학당국에 조금이나마 학교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단식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단식을 핑계로 학생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과 학교발전에 가장 앞장서야 할 재단이 학생들의 눈물어린 외대사랑의 몸짓을 외면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외대발전이 어떠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단식에 돌입해 현재 청량리 위생병원에 두번이나 갔다옴 정도로 허약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수현상이 심해 단식을 계속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대사랑을 몸소 실천해 외대를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으로 견디었습니다.

대학당국이나 재단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협상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직 재단은 학생들의 외대발전의지를 묵살하고 외대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는 변함이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외대발전운동을 풀어나갈 예정입니까?

외대발전운동은 외대여사상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의 근본적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외대의 발전은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의 중론이며 몰락해가고 있는 외대의 비참한 역사가 확인해 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외대발전은 단순히 외대를 사학의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민주적으로 개편시켜 외대에 올바른 교육이념을 가진 진보의 물결이 넘치는 대학인의 요람으로 만들때 외대발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대발전운동의 계획은 외대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술을 마련하고 싸움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으로서 외대인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실현은 다수에 의한 참여가 보장될 때에 가능합니다. 외대에서 어떠한 운동이든 외대인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외대발전운동 역시 그 대의가 어떤 명분이 있건 외대의 주인인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승리도 할 수없거니와 운동은 진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이것은 현재 가장 필요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앞으로 학생회 사업에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매우 비관적인 전망에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노재봉 본보편집장

지 면 안 내

3면 : 서울총학 재단 불신임 신포
4면 :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 신세대
7면 : 문화시평-김규동시인
8면 : 양캠,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진리 · 평화 · 창조

조국을 품에 안고 세계로 향하는 마음

"오늘을 만족하지 않기에
캠퍼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큰 호흡을 하되
그 가슴은 언제나 조국을 품고 있는 외대인.
지난 서른 여덟해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완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어깨를 걸고 지구를 굴려가는
휴머니즘을 가슴 가득 간직한 외대인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탤 때
누군가 대학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외대만한 곳"이라고,
"생명력있게 살아 움직이는 외대의 모습"이라고.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 설

사학 재산공개는 대학개혁의 첫걸음

김영삼정부와 언론의 유착속에 그렇게도 떠들썩했던 개혁의 물갈이 작업이 정치계, 교육계를 넘어 군부로 치닫고 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상을 반영하듯 기득권세력이 발딛는 곳마다 부수한 비리와 스캔들을 일으키더니 일간지와 뉴스속의 화려한 장식도 이제는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고통을 감수했으니 이제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할 차례다며 언론을 통해 거역할 수 없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개혁의 칼바람이 마무리되는 요즈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정부의 일련의 개혁의 부정부패를 상당수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아닌 단순히 집권층의 물갈이 작업, 이미지변신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느낀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학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사법처리만 시행할 뿐 사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책이나 장치는 전무하다. 사회부조리를 고발하고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온 시대의 지성으로서의 대학이 현재는 온갖 비리의 근원이 되는 부패집단으로 타락하고 있는데에도 어떠한 부정방지책과 대학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쉽게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재정난을 핑계로 대학입시를 재정사업으로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학재단과 대학당국은 제수없게 걸린 몇몇 사학을 제외하고는 개혁의 바람과는 무관한 평화로운 5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학비리가 사학을 독점화, 사유화하려는 재단의 횡포에 의해 저질러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더 사학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학운영을 전담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재단에 대해 학내 제주체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은 일면 반가운일이지만 민자당, 민주당 그 어느 개정안에도 재단에 대한 구절은 없는게 현실이다. 단순히 대학운영의 책임자는 총장이니 총장은 재산명시와 공개를 해야 하며 처벌의 수위는 과면에 국면한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비리의 주범은 교육칠학이 부재한 부패한 사학재단에 있다. 사실 총장은 형식상 대표일 뿐 일련의 법개악으로 인해 사학에서는 권한이 축소된 상태이다. 따라서 대학의 파행과 일련의 개혁의 대상은 총장이 아닌 사학재단이어야 하며 재단을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사장의 모든 재산은 명시, 공개하고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부정이 있을시 과면이 아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사학이라는 이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따질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정계의 세력재편을 위한 물갈이로서의 개혁이 아닌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척결을 위한 진보의 개혁이라면 공직자 윤리법에 대학교육의 책임자로서 재단과 이사장에 대해서도 재산공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용의 대상도 공직자 뿐만이 아닌 대학관계자,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기득권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재단수익체의 수익이 전부한 재단, 재단전입금에 포함되는 기부금액수가 재단전입금보다 많은 특이한 재단, 재단문제로 교육보다 학원민주화 시위가 학내분위기를 주도하는 사학재단은 어느 때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원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또한 우리학교 동원재단 스스로도 외대발전을 위한 성실한 부지의 첫 단추로 법인의 자산과 이사장의 재산을 공개해 학생들에게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는 비참한 신세를 면화해야 할 것이다.

제 2기 모니터 요원 모집

'비둘기 기자'라는 명예와 함께 매주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평기하며 외대인과 외대학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와 보셔요.

<외대학보 여론부>

지적 삶의 터전인 왕산이기를…

머칠 전 한 후배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모현학사에 회화반이 개설 되었는데, 외국인 강사가 너무 멋있고 지적이라 자기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선생이길래 이 먼곳까지 와서 저녁시간에 회화를 가르치려고 할까. 내가 너무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다음날 그 후배는 하루만에 표정이 일백 팔십도 바뀌어서는 그 외국인이 '도망갔다'고 했다. 사실 그 전날에도 다른 회화선생이 왔었는데,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일찌감치 물러났다고 한다. 우스운 얘기일지는 모르나, 웃고만 넘기기엔 아쉬운 왕산의 현실이 생각나 본인의 의견을 몇자 적는다.

먼저, 회화강의 개설을 위해 수고하는 모현학사 사생회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왕산을 사랑하는 학우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제14대 총학생회는 현 기숙사터에 기숙사 증설과 아울러 교수 공동연구실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사항에 밝힌바 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설립 명분만은 뚜렷한 것이며 왕산에 있어선 학내 문화기 변화의 핵이 되리라 믿는다.

필자처럼 몇 년 왕산에 정을 붙이고 긴 캠퍼스를 도보하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공동화'란 말이 결코 낯설지 않다. 5시반 이후로는 거의 모든 교수 연구실은 노래 제목처럼 '불켜진 창'이 된다. 가끔 외국인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자 청하면 그분들은 먼저 시계를 본 후 버스시간을 알려준다. 가야한다는 표시다. 교수님도 가시고, 학생도 간다. 남는 것은 '모현 주민'이 된 학우들과 기숙사생이 대부분이다. 대형히 큰문을 열고 따뜻하게 기다리는 도서관 열람실이 있다. 그리고 그 불빛만은 밤11시까지 너무나도 밝다.

지방 캠퍼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지만 외대는 언어와 관련된 학과가 많고, 언어란 습관과 반복의 결실이라면, NATIVE SPEAKER의 학내 거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4년 배워도 능숙하게 되기가 힘들지 않는가?

다행히 왕산에도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강의평가제니, 지정좌석제니 하며 말도 많고, 욕다 그르다하며 공방도 많다. 확실히 이런것들은 예전과는 다른 긴장적인 모습이고 또한, 왕산의 풍·번역 협회가 생긴다니,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덧붙여서, 이른 캠퍼스의 풍역협회는 그 대외적 이미지나 역할과 활동이 왕산 풍·번역 협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앞게 모르게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 두 캠퍼스의 미래에 일종의 희기적인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열심히 일하는 총학에게 부탁한다. 3월초부터 현 4월중순까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추측했던 학술 세미나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도서관 세미나실은 조금 더러워 지더라도 우리 학우들의 발길이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학우들이 스스로 생각을 갖고 닦을 수 있는 것을 세미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큰 것을 잃고 있음이 틀림없다. 학우들간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각자 수렴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사는, 우리가 생활하고 공부하는 이 공간은 확실하게 변해야만한다.

세상은 매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우리도 이곳에서 세계 정세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학술 발표회가 있다는 플랭카드를 좀 볼 수 없을까? 훨기찬 지식들이 난무(?)하는 곳으로, 배움을 갈구하고 노력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학술 발표회가 빈번한 대학원 지체가 없다든지 혹은 교통체 중이나 지역적 특수성의 탓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열망이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갈구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의 젊은이들을 지적으로 더욱 자극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우리 왕산을 발전되게 만들어가는 길의 하나일 것이다.

박세정(서학 · 영어4)

박신일(서학 · 독어2)

흡산의 소리

짧지만 깊은 이야기

글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야만 진정으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외대인이 함께 공감하고픈 이야기를 쓸게니나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참다운 목소리를 외대학보는 귀기울입니다. 한번 펜을 들고 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외대학보 '흡산의 소리'의 진정한 주인인것을 잊지마세요.

편견없는 눈으로…

요즈음 학교신문지상에는 '아웃사이더'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였다면 물론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바로 그 '아웃사이더'라는 동아리를 현재 이끈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아웃사이더는 올해로 11기를 맞아들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제법 역사가 있는 동아리중 하나다. 또한, 학내 통틀어 유일의 공인 ROCK그룹사운드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중 일부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학우들의 지대한 관심과 박수갈채 속에서 아웃사이더는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번 총학생회 해오름식 축하공연을 계기로 우리는 본의아니게 주위의 비난을 사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공연에 대한 어느 신입생의 투고를 읽었을 때는 너무도 충격이었다. 물론 너무도 촉박했던 준비기간으로 인해 공연지체에 약간의 실수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아웃사이더가 단지, 앞에서 언급한 공연진행의 부족함으로 인해 비난을 사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처음 공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최측으로 부터 선곡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 받았고, 또한 나름대로 우리 동아리의 성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축하공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흥겹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우리나라곡과 외국곡을 적당히 섞어 공연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연당일, 주최측의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준비한 곡을 반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공연을 끝내야 했다. 촉박한 준비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연준비를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치 그 행사를 망쳐버린 주역처럼 되고만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주최측의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돌릴수는 없다. 주최측 또한 자신의 폭을 넓히려는 좋은 의도에 의해 우리를 초청한 것이고 그에서 나도 그 제의를 기쁨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 우리는 혼란스럽고 정신 없었던 당시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다. 번명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연 지체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우리 동아리가 그런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스럽다. 아웃사이더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학우들과 같이하면서 이제는 학내에서 어느정도 자리잡힌 동아리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거기에 앞맞게 우리의 음악도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아무이의 없이 뿌리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쯤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우리들은 대중음악을 무척 좋아한다. 가요는 물론, 팝송, 락, 더 나아가 재즈나 그외 많은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표면상에는 대학문화에 있어서 약간은 좌시되는 감이 없지 않다. 이제는 우리 음악이 학내 어떤 행사에 참여해도 아무 거부 없이 같이 즐기고 흥겨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도 항상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말하고 싶다.

<신세철 동학 · 일본어2>

작은 일부터 외대발전을

미네르바 동산을 수놓았던 빛꽃과 개나리는 어느덧 지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중간고사는 부활하듯 봄꽃 향내음을 음미할 자유(?)마저도 갈취해버렸다. 오히려 시험기간이 한가한 가운데 중간고사라는 거대한 괴물은 나의 머리속을 무지와 혼란속으로 몰아버렸지만.

요즈음 보도매체에서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히트를 치고있다. 정치인의 부정비리는 말할 것도 없이 신성한(?) 교육계마저 비리척결의 칼자루에 가렴게 잘려지고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소위 있는 자(?)의 사고방식 자식들의 대학생활중 겪을 갈등을 조금이리도 생각하였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과연 저런것을 할 수있었을까? 괜한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가히 좋은 인상이 남지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까? 아니다. 책상위에 덧칠해진 저 더러운 짓거리를 보면서 소위 양심이니 하는 것을 생각하니 왠지 꺼림직하다. 순수함이라는 명예 아닌 명예를 지니고 있는 상아탑에서 꺼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는 부정행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의 부정비리와 비교하여 강도의 차이를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아주 조그마한(?) 부정행위일지 몰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양심은 서서히 점은 빛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도덕 불감증 시대를 함유(?)하고는 있지 않은지 지금부터라도 나도부터 자각하여 조그마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외대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때다. 오늘도 외대발전이라는 명제를 안고서 조그마한 캠퍼스를 발바닥에 땀나도록 걷고 있지 않은가!

김종윤(정과 · 행정2)

한많은 이땅 한반도에 총칼로 짓밟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연연하지 않고 투쟁하는 그대 한총련이여

—왕발이—

1백만 청년학도를 통해 이천만 노동자를 그리고 4천만 민중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지길

—새물결 · 삼돌—

전대협의 이름과 그 순결한 선배를 잊지말고 투쟁합시다.

—J 104—

하늘높이 날아서 한국대학의 큰 별이 되기를

—92 Skelup—

한총련이여! 외대발전의 가열찬 투쟁을 지켜보라.

—모현주민—

외대인이여! 승리하자 한총련의 명예로!/!

—고독이—

통일세대인 한총련! 그대는 통일의 주역이 될지라라.

—93 백투—

나의 첫사랑 전대협, 내 시랑의 결실 한총련! 너를 사랑하노라.

—선녀탕 선녀—

백지 대자보

주제 새롭게 건설된 한총련에게

백만 학도의 200만 눈동자가 지켜봅니다.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투쟁합시다.

—91 S복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이만 바빠서…

—바쁨이—

아! 글씨. 열심히 한번 해보시래니깐유~

—흥도에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아들이 이루어주길 바리며…

—한 총년의 아버지 전대협이—

이번이 없는한 한총련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수지가—

6살에 요절한 전대협의 한풀이로 환갑(60)까지 거뜬히.

—장수마을 코카서스—

단체 사진촬영시 주의 사항

* 각과 해당시간 10분전에 단체사진 촬영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 4학년 과대표 및 취업대표는 촬영일시 2—3일 전 교수님께 일정을 알려 드리고, 당일 지정시간 10분전에 교수님을 모시고 촬영예정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 Group사진은 12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4학년 과대표는 일광조건을 고려, 과단체 사진 촬영 장소를 선택하여 사진에 학우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 당일(이른 8시 기준) 우천시에는 촬영 날짜를 추후 공고합니다.
* 지세한 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단체 사진 촬영은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재촬영은 없습니다.

개인 사진촬영시 주의사항

* 각과 취업대표는 촬영 4—5일전 소속단대졸준위원들로부터 촬영권을 인원수에 맞추어 배부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진은 각과별로 시간 배정이 있는 관계로 제한된 시간내에 반드시 촬영을 마쳐야 합니다.
* 개인사진 촬영이 늦을 경우 편집시간이 줄게되어 좋은 앨범의 제작이 어렵게 되므로 각과 취업대표, 과대표님께서는 이번 지정일에 반드시 촬영을 완료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여학우들은 개인촬영과 동시에 졸업반지 치수를 측정합니다.
* 촬영할 장소는 4호선 명동역에서 하차, 세종호텔 및 건물에 위치한 Art기획 스튜디오입니다.

아트스튜디오(전화번호 : 757—8381)

개인사진촬영장소

이문 : 학생회관 2층 961—4410

왕산 : 학생회관 3층(0335) 30—4158

제/7/대/졸/업/준/비/위/원/회

단체 및 group 사진

이문일정

5월 3일 월 10 : 00 스웨덴어과 11 : 00 포어과 12 : 00 영어과
4일 화 10 : 00 화란어과 11 : 00 이태리어과 12 : 00 독어과
6일 목 10 : 00 노어과 12 : 00 경영학과
7일 금 10 : 00 무역학과 11 : 00 경제학과 12 : 00 서어과
10일 월 10 : 00 정외과 11 : 00 신방과 12 : 00 행정학과
11일 화 10 : 00 터어키어과 11 : 00 베트남어과 12 : 00 아랍어과
12일 수 10 : 00 이란어과 11 : 00 마인어과 12 : 00 중국어과
13일 목 10 : 00 태국어과 11 : 00 인도어과 12 : 00 일본어과
17일 월 10 : 00 법학과 12 : 00 불어과
28일 금 10 : 00 한교 11 : 00 영교 12 : 00 불교 13 : 00 독교

왕산일정

18일 화 10 : 30 독어과 13 : 00 불어과
19일 수 10 : 30 포어과 11 : 30 노어과 13 : 서반아어과
14 : 00 이태리어과
20일 목 10 : 30 인도어과 11 : 30 아프리카어과
13 : 00 마인어과 14 : 00 영어과
21일 금 10 : 30 태국어 11 : 30 일본어
13 : 00 중국어 14 : 00 아랍어
24일 월 10 : 30 유고 · 헝가리어과 12 : 00 체코 · 루마니아어과
14 : 00 폴란드어과
25일 화 10 : 30 경제학과 14 : 30 사학과
13 : 00 무역학과 11 : 30 경영정보학과
26일 수 10 : 30 철학과 11 : 30 언어학과
13 : 00 미생물학과 14 : 00 환경학과
27일 목 10 : 30 전산학과 11 : 30 수학과
13 : 00 화학과 14 : 00 물리학과

학사모 및 정장 사진

이문일정

5월 7일 금 11 : 00 스웨덴어과 12 : 30 신방과 14 : 00 영어과
10일 월 11 : 00 화란어과 12 : 30 이태리어과 14 : 00 독어과
11일 화 11 : 00 노어과 12 : 30 서어과
12일 수 11 : 00 무역학과 12 : 30 경제학과 14 : 00 경영학과
13일 목 11 : 00 정외과 12 : 30 행정학과 14 : 00 포어과
14일 금 11 : 00 터어키어과 12 : 30 베트남어과 14 : 00 이란어과
17일 월 11 : 00 이란어과 12 : 30 마인어과 14 : 00 중국어과
18일 화 11 : 00 태국어과 12 : 30 인도어과 14 : 00 중국어과
19일 수 11 : 00 법학과 13 : 30 불어과
6월 1일 화 11 : 00 한교과 12 : 30 영교과 14 : 00 불교과 15 : 30 독교과

왕산일정

20일 목 11 : 00 독어과 13 : 00 불어과
21일 금 11 : 00 포어과 12 : 30 노어과
14 : 00 서반아어과 15 : 30 이태리어과
24일 월 11 : 00 인도어과 12 : 30 아프리카어과
14 : 00 마인어과 15 : 30 영어학과
25일 화 11 : 00 태국어과 12 : 30 일본어과
14 : 00 중국어과 15 : 30 아랍어과
26일 수 11 : 00 유고 · 헝가리어과 12 : 30 체코 · 루마니아어과
14 : 00 폴란드어과
27일 목 11 : 00 경제학과 12 : 30 경영정보학과
14 : 00 무역학과 15 : 30 사학과
28일 금 11 : 00 철학과 12 : 30 언어학과
14 : 00 미생물학과 15 : 30 환경학과
31일 월 11 : 00 전산학과 12 : 30 수학과 14 : 00 화학과 15 : 30 물리학과

서울총학, 재단 전무이사 불신임 선언

4일부터 6일까지 투표해 투쟁방향 설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어제(3일) 오후 4시 노천극장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갖고 재단전무이사 불신임을 선언하였다. 과별 총회를 가진 1천 7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비상학생총회에서 서강여대 학생회장 정종경(서양·독어4)군은 재단전무이사의 불신임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 "명문 사립대로 우뚝섰던 외대가 어느새 침체의 길을 걷고 있고, 이는 바로 재단의 무지미비와 외대발전에 대한 외면에서 시작된 것이며 84년 이후 새로운 재단진이 들어오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며 "무지를 기피하는 재단이 계속해서 외대에 있는 이상 외대발전은 이룰수 없기에 재단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편시키고 외대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재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캠퍼스에서는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외대발전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한 사범대 학생회장 변진선(사범·한교4)군은 5월 일정및 투쟁기조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4일(화) 부터 6일(목) 3시까지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고, 6일 투표결과에 따른 5월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불신임 투표가 비록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의 위상을 바로잡고 외대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힘의 표현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현정세속에서 재단이사의 퇴진투쟁은 학내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당장 재단을 퇴진시켜야 한다' '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보학생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외대발전 투쟁의 목표는 박승준 이사 불신임이 아닌 근본적인 재단퇴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훈 총학생회장은 "단계를 차근 차근 밟아가며 재단퇴진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또한 퇴진 이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며 "중대에서 총장 불신임을 실시하자 학교측에서 전면수용했듯이 불신임은 커다란 힘을 가진 당면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간 총학생회의 사업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토대위에서 이후의 투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외대발전의 걸림돌은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무관심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용인 캠퍼스와의 연대투쟁 방안과 그 이후 외대 입시방안에 대한 토론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식 8일째를 맞고 있는 총학생회장과 6일째인 중앙운영위원들이 해단식을 갖고 이후 더욱 힘차게 외대발전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서울캠퍼스는 이후에도 계속해 외대발전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본교 본고사 포기 전기만 모집하기로

지난 4월29일(금) 본교는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94년도 본대학교 입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입시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본교는 당초 본고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설문조사결과 경비부담등으로 인해 본고사를 치르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해 본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학과별 정원의 40%이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본교는 '94 대입입시부터 전후기 분할 모집하던 전형을 전기에만 1명%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사 령

임

대학부장

박재철(서학·영어2)

이상 5월 4일자

본교 '93 예산확정 왜 안되나

예·결산 확정기한 넘긴채 미확정

학생 눈치보기식 행정 벗어나야

'예결산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93학년도 예산과 92학년도 결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도 결산과 올해 재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이 그 확정기한을 훨씬 넘긴 상태이기에 의도적으로 공개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결산의 미공개 상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예·결산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입장이다.

여기서는 예·결산의 확정절차와 대학당국의 미확정 요인을 알아보자.

최근 교내학사행정은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오히려 서울캠퍼스에는 담장공사, 식목작업, 노천방수공사가 진행 또는 마친 상태이다. 모든 행정과 공사가 돈과 무관하지 않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용이나 교직원 봉급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을까?

먼저 예산을 살펴보자. 예산의 총액이나 각 부분에 투여되는 재정규모는 해마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이 부분에 그만큼 증액을 해야 한다. 서울캠퍼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책정과정부터 논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증액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측 요구안을 대학당국이 거절할 때마다 감초같이 제시한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즉,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절차들은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과 피부적으로 연관이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예산확정 기한은 2월 18일까지이다. 예산 확정까지의 과정은 회계년도 개시(3월 1일) 2개월전까지 재단 이사장은 예산편성요령 규정, 총장은 학교 예산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전까지 확정하여 총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기간내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 감독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교는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상 대학재정의 감독청인 교육부와 대학 재정담당자의 관계는 상식과는 달리 유화적으로 보인다. 원인으로는 이번 부정입학 보도에서 잘 드러났듯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관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전관계도 오고 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정한파와 함께 교육부 관리들이 대거 바뀌는 등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들속에서 본교도 도매금으로 허술히 넘어가고 있는 듯 하다.

92학년도에 쓰여진 돈을 정산하는 결산은 4월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는 4월 2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에 쓰여진 돈만 계산하면 되는 결산은 11월말까지의 결산이 있음에도 아직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감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학당국은 감사활동을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있는 듯 하다. 서울캠퍼스 재무처 유순복 경리과장은 "해마다 재단감사가 한번씩 다녀가긴 하나 특별한 시정조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덜어서 먼저안남 장부가 없을 듯 한데 1년에 한두시간 와서 시정조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5월이다. 1학기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예·결산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할 것도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예결산 공개'에서 멀어지기만 기다리는 시간줄기식의 구태는 이제 사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상은 기자>

대생협 매장, 등록증 문제로 마찰

대생협측은 학생자치 활동 침해로 규정

용인캠퍼스 교내에 '대생협 탄압 중지하라'는 대자보가 곳곳에 나붙고 있다.

대학당국이 3월 중순부터 대생협측에 요구한 결산 자료등의 내용이 부족하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데서 이번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대생협의 예·결산 공개'등을 주장하는 대학당국과 '모호한 기준에 의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대생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은 '학교의 장(長)' 즉, 총장명의로 발행되며 법적으로 영업을 인가받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껍'하나 과는것도 불법으로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대생협은 이 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한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대생협 조합장 황영묵(인문·사학 4)군은 "대생협 매장은 다른 매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현황 보고가 정확하다"며 "각 매장 거래현황 자료에서 의문점이 더 많은 매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대생협에 대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대생협 탄압의도"라는 입장이다. 황군은 외부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거래현황상 나타난 문제로 △명세표와 영수증에서 드러난 수치의 차이 △담배등 판매품목이 빠진것 등을 들었다.

대학당국이 대생협측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회계관리 철저 △학생처 직원 입회하 계약체결 △불합리한 가격 시정 등이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조항은 위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자등록증 사용을 중지시킨다는 조항이다. 절대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상태에서 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윤 교수)에 전권을 위임한 조항으로 보인다. 이에 대생협은 "총장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지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이러한 조항은 "대생협 직영매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7명여 조합원과 함께 대항할 것을 결정해 놓고 있다.

학생회 단위에서도 지지 대자보를 붙이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중에 있다.

앞으로 임대료, 세금면에서 혜택을 누리는 학내 매장이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매장에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국 제적생, 48명 복학

미등록 제적자는 2학기 복학

외대제적생 복적추진위원회(외복추위)와 학교당국은 지난 4월 29일(목) 재입학대상 및 시기, 등록금문제, 학점문제, 순수미등록제적자처리문제 등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지난 30일(금) 시국및 학생회활동에 관련하여 제적된 48명이 재입학했다.

외복추위와 학생처장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이된 등록금문제는 시국관련제적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전액을 면제하고 학생회활동 관련제적자는 재입학 해당하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졸업시 까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학점문제는 재입학전 F, W과목 학점은 별도의 추가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순수 미등록 제적자 처리문제에 대해 순수미등록제적자는 2학기에 재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시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로 양지가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외복추위 위원장 최원일군은 "외복추위는 시국, 학생회활동으로 인한 제적생 뿐만 아니라 생계, 군입대휴학기간 초과 등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복적이 이루어질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복추위는 4일(화) 복적생 전원이 모여 정문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와 함께 노트 한권씩 기념품을 배포하며 그동안 복적투쟁을 지원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예정이다.

빈의자

불효자식둔 부모의 외도

▲자식이 독립할 나이가 되도 부모는 자식에게서 손을 뗄수가 없다.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식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쏟는 것이 부모다.

▲요즘 김영삼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보면 '자식과 부모'놀이가 연상돼 그 애정에 감탄하게 된다.

확실히 언론은 잘못 크고 있다.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상업성을 향해 고속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참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연줄'을 잡았다.

앞에선 잘못 크고 있는 '자식'을 추수리듯이 충고하지만, 뒤에선 온갖 회유와 협박이 목하 진행중이다. 언론도 위나 절리는게 많은 터라 정부의 충고에 발빠르게 움직인다. 신문사들은 월2회 휴간, 지면줄이기의 원칙을 세워놓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대응양상이 아주 불만하다.

▲각방송사의 주말 뉴스프로그램 개편을 보자. 주말이면 낮이고 저녁이고 틀어대던 뉴스들은 아예 없애버리고, 밤뉴스는 대폭 축소했다.

이전에 4십분에서 한시간 분량의 뉴스를 SBS—20분, MBC—30분, KBS—40분으로 반정도로 줄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오인환공보처장관이 "김대통령이 언론사가 제산공개 안하는 걸 50일이나 참았다"고 언론사 간부들에게 힘박(?) 하자 각 언론사들은 '알아서 기기'를 시작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에 관심이 많다. 그날 나온 신문, 뉴스들을 모조리 섭렵할 정도이다. 얼마전 김대통령은 "언론도 신한국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속보이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은 언론이 자신의 개혁정책에 대해 일말의 비판조차 못하도록, 언론이 알아서 비판의 '촉수'를 잘라주기를 바란 것이다. 이제는 언론사 '제산공개'를 꼬투리로 '언론완전장악'의 봉우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뉴스시간 대신 외화나 드라마등 흥미위주의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국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높에 보인다.

언론통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6공과는 뭔가 다른 고단수의 통제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위치가 잘못되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다. 언론의 '부모'는 김영삼이 아니다. 국민이다. 국민이 언론을 감시하고 채찍질해야 한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비판의 예봉을 가치없이 휘둘러야 할 것이다. 이때는 그 누구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오직 국민의 심판만은 두려워해야 한다.

아버지의 눈을 뜨이게 하려고 인당수에 빠진 심청의 애틋한 효심과는 달리 '부모'의 눈을 멀게하려 온갖 행태를 부리는 '불효자식'내지 '반항아' 같은 언론의 모습을 보니 출직히 장래가 걱정스럽다.

<이진영>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정공편)

현대정공 자기부상열차 개발팀

21세기, 現代의 '꿈의 열차'가 달린다

— 현대자기부상열차 개발 성공 —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어려울 것 없다. 일단 레일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와 자료만으로 시작한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은 부상과 추진은 물론 정위치 제동, 차체 경량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사까지 지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8년여의 각고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내최초로 곡선운행까지 가능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93 대전 EXPO에서 관람객이 직접 탑승할 수 있게 된 최고시속 150km의 현대 자기부상열차—
순수 우리 기술로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실용화를 이룬 지금, 금세기 내에 시속 400km 세계 제일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21세기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특급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現代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 신세대

신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1. 신세대 현상이란
2. 변화의 주·객관적 원인 및 학생운동의 전망

첫번째

학생운동을 사회에 연결키 위해 공부에 충실한다

신세대, 이데올로기적,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1년 차이에서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라는 말도 이제는 남카롭게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꼬집어 주지 못하는 씨이 바랜 옛말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고 이러한 가속도가 붙은 사회의 변화속에서 일명 '신세대'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새분야로 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젊은층을 압축어 신세대라 말하기도 하지만, 청년학생들의 산실인 대학가에서도 신세대라 불리워지는 층이 있다. 바로 90학번대를 신세대라 칭한다. 80학번대와 90학번대로 나누는 것이 기계적인 분류라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90학번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세대라는 단어가 말그대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학가의 변화를 순수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수단 혹은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예전의 학생회는 학우대중에 기반하지 못했다는 식 혹은 이제는 더이상 대정부 투쟁은 필요없다'식의 여론형성 그리고 신세대는 자유롭고 풍요롭게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성을 조장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말 그대로의 신세대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세대 현상이란?

신입생이면 누구나 대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낭만을 꿈꾸며 진학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매스컴이나 서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느껴보고자 하는 발길이 분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짝짝여진 틀속에서 대학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른채 입시를 위해 고파서만 외우다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꿈과 희망의 상징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 1세대라 불리는 90학번 이상은 고등학교때부터 교육개혁 투쟁을 경험하면서 대학을 막연하게 나마 깨달고 있었기에 80학번 세대들이느꼈던 감정을 가지기에는 부리이다.

"대부분 취업을 앞둔 4학년생이 듣는 영어 특강인데 1, 2학년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취업을 앞둔 4학년들만이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키던 시절은 이미 아닙니다"

"지기가 속한 소모임에 대한 애정은 높은 반면 전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신세대 현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지금의 대학 초년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들 말한다.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외국 회화 및 컴퓨터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에 열심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공부로 인해 과학회나 동아리등 소모임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전과 비교해 볼때 이러한 소모임 활동이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 성격과 양태가 변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친목을 도모하고,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끼리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로서의 소모임이다. 소모임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모임 자체는 개별적으로 활성화되지만 그것이 과학생회로 집중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학내 전체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각기 관심있는 분야를 찾아가면서 신세대들은 개별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관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던것 처럼 대학 초년생들은 예전과 비교해 볼때 미리부터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사회 진출을 위하는 분야도 아주 다양하고 그 준비정도도 구체적이다. 대학생일때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서도 운동의 신념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 내용에 공감하지만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투쟁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세대 현상 80, 90학번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신세대라는 단어에 대해 신세대라 불리는 본인들 스스로는 대부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씩씩한 젊은이의 힘을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80학번대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오렌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등 퇴폐 향락 문화를 즐기는 이들로 신세대가 지칭되기도 했으며, 감정적으로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 단절감을 주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있었다. 이것은 신세대라는 단어가 단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중 한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소비지향적이고 돈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치중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컴퓨터 동아리나 도서관을 주로 찾으면서 개별화된다며 신세대의 부정적인 면에 방점을 찍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신세대라 불리는 그 사람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세대라 말하지만, 실상은 "취업을 위해 1학년 때 부터 숨가쁘게 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개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산업 예비군을 길러내는 수준으로 대학을 타락시킨 대학교육정책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라고 신나영(동양·인도4) 양은 말한다. 대학 정원제, 제2캠퍼스 정책 등으로 대학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해가는데 교육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졸 취업난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이 빚어내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신세대 현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즉 80학번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회환경속에서 억눌려왔던 분노를 민주화 투쟁의 대열에서 풀어내고 대중의 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지만 90학번대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환경과 일정정도 사회적 안정속에서 역사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고 내 생활의 원칙이기 보다는 교양의 수준이다.

일렉로 노래방 문화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는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는 노래방에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직접 생활의 토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외국문 문화에 익숙하여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패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선배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신세대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출입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변화한 사회상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에서도 차이가 선명하다. 신세대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해지던 이 시대와 달리 디이상 특권층이 아니며, 외대 졸업장이 디이상 나의 취업을 보장하는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이 급속도로 양적 팽창을 이루면서 남보다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취직 재수생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세대 현상이란 대학가의 감작스런 변화가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사회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 지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 전반의 문제와 함께할 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신세대의 정치의식

대학의 분위기도 급속도로 바뀌어 간다. 예비역 복학생들이나 감옥에서 출소해 캠퍼스로 돌아온 사람들은 변화한 대학의 분위기에 적응되지 않아 한동안은 어색하고 힘들다고들 한다. 해마다 4, 5월만 되면 각 대학마다 대정부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던 자신이 다니던 당시의 대학 분위기와 현재의 투쟁 양상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권에서는 학생운동의 퇴보이니, 대학은 이제 투쟁을 포기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호도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의식이 탈정치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 창조라는 개혁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내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의 투쟁을 전개하지만 이는 결국 대교육부 투쟁과 연결이 되면서 정부가 진정한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한다고 대다수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김영삼 정권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선의의 경쟁이라 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군사정권이래서 온 국민이 신음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그 내용이 진정한 민주정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문민정부로 출범하였고 가시적이나 개혁들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염병 들고 타도를 외치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운동의 양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김현식(동양·중국어 4)군은 "간부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간부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야 하며 외대발전 투쟁의 궁극적 목표들을 가슴으로 품으로 학우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예전에도 물론 정치 투쟁만 진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치투쟁과 외대발전 투쟁에서 생활문화운동까지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가고, 외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체육대회등의 행사를 통해 과학우들을 하나로 응집시켜내겠다"고 진원(동양·이란어3) 군은 결의를 밝힌다.

이러한 간부들의 변화와 고민은 학생운동의 질적 비약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강인숙 논설위원>

열사를 통해 본 사회사 I

이재호·김세진 열사와 86년 사회상

반미투쟁의 대중화, 86년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영원한 혈맹이라는 미국에 대한 이해가 각계 민중계층속에서 새로이 인식되었다.

한반도 분단상황이 고착화 되어감에 따라 반외세 자주화운동의 전통이 단절되는 듯 하였지만, 광주항쟁을 계기로 민족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남한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보호벽이며 남북분단상황을 영속화하여 그들의 조국가적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실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80년 12월 광주미문화원 방화투쟁을 선두로 반미지주화운동은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전개된다. 83년 레이건 방한 반대투쟁, 85년 전두환 방미 반대투쟁에 이어 같은 해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으로 반미지주화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다지게 된다.

86년을 계기로 반미지주화운동은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며 새로이 전개된다.

이 시기의 반미운동은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반전반핵운동'으로 시작된다. 서구의 인도주의적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반전반핵운동은 남한의 상황에서는 더욱 지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남북분단의 대치상황, 미군의 남한 군사주둔 등의 구체적 현실상황과 정치·경제적 대미 예속화는 민중의 생활고를 더욱 압박하며 한민족의 분리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86년 4월28일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의 주도로 서울대생 400여명의 가두시위가 있었다. 이날 당시 투쟁위원장이던 이재호(서울대 정치학과 4년), 김세진(서울대 미생물학과 4년) 열사의 화염에 쌓인 분신속의 외침은 '반전반핵양키 고 홈', '미제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반미지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 만세'였다. 두 열사의 분신은 반전반핵운동을 반미운동의 한 형태로 전개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86년 1학기동안 학생운동을 전방입소 거부투쟁과 팀스피리트훈련 반대투쟁을 통해 반미운동을 정착화시키며 노동자·농민등 기층민중의 반미의식을 고취시켰다.

86년 당시의 국내외 정세는 남한단독 올림픽, 남북한 UN동시가입, 남북교차승인 등으로 한반도의 영구분단 고착화를 꾀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86년을 계기로 '반전반핵', '미제축출' 등의 다소 급진적인 구호는 한국현대사 위에 86년을 반미운동의 원년의 위치로 올려 놓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재호, 김세진 열사의 숭고한 죽음앞에 군부독재정권인 전두환정권은 가면의 민주주의를 시인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닳고 닳아 더이상, 썩어 문드러져 가는 독재와 반민주의 실상을 감추어 줄 수는 없었다.

이듬해인 87년의 상황을 4·13호헌조치, 6·29선언에 이어 12·16대통령선거 문제로 다시 격동의 시간들이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필두로 노동자·농민등의 전국민적 항쟁으로 확산된 6월항쟁과 7·8·9월의 총파업투쟁은 아직도 뚜렷이 기억되고 있다.

아직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민주화투쟁은 지금 살아있는, 지난한 격동기를 지나 여태껏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반외세 자주화의 실현을 길고도 간고한 투쟁을 요구한다. 이속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선 민중스스로의, 우리스스로의 반미자주화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부>

세계경영 우리기술—대우

지난날 세계로 치달았던 한민족의 기백을
오늘, 대우가 「세계경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 있는 만주벌판…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우리 선조의 커다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 옛날 굽힐 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달았던 고구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창업 이래 지난 4반세기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발길과 어느 기업보다 앞선 해외시장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연다

개척으로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대우의 정신적 좌표입니다. 이제 대우는, 세계로 치달았던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 한국의 자존(自尊)을 지구촌 곳곳에 심었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기술로 해외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경영의 脫국경화전략 「세계경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중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넘어 '해외현지경영'으로—
대우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역블록화의 급속한 진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 등으로 해외시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대우가족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시민포럼 정리—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인사는 만사, 이렇게 합시다.

지난 4월29일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 이장희—외대 법대 교수)이 주최하는 학술시민포럼이 열렸다. '공무원 인사 청문회 제도의 도입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시민포럼은 사회 여명부(동아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박동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남재희(민자당 당무위원), 박재창(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철(민주당 국회의원), 정경희(한국일보 논설위원), 홍승준(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사슬을 끊는 것이 정실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된 시점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는 '깨끗한 공무원 뽑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썩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공무원에 임명되기 전에 경력 등을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출발한다면 과거보다 책임성있게 행정을 해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표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에 관한 논문중에 박동서 교수의 논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의 각 고위직에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하는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의 자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선의의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소수집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범할수 있는 실수를 가급적 여러과정이나 사람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자율 또는 타율적으로 감소하려는 노력을 많은 나라가 경주 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그간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집권자에 따라 법안의 변화가 있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임명권자가 일단 여러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의 명부를 작성한 후 이들중 특정적에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정기관을 통하여 여러가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케 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세평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적격자라고 하는 견심이 서면 인준을 요하는 소수특정직의 경우는 이를 거치게 되며, 그러한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곧 바로 임명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방법이 이용되었어도 그간의 평가를 보면 이념이나 도덕, 신념면에서 능력, 경력, 성격면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일차점단 기것은 없었고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5공비리 조사와 광주민중항쟁 조사를 위해 구성되어, 개방중되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상대적으로 국회의 지위, 평가를 높혔으며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의원들의 직책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인준 또는 인사 청문회를 가져 본 적이 없는데 이번 현정부 출범시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인사 중 여러가지 이유로 좋지 못한 평을 받게 되자 현 정부가 시발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을 고려하여 임명된지 며칠 되지 않아 사인케함으로써 실수로 인한 오점을 남기게 되자 개선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를 인사권자가 '인사는 비밀이다'라는 말의 잘못된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계속 실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 제3자의 논평, 질의, 더구나 인간의 자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그들의 말이나 타인의 추천보다는 같이 일해본 사람의 체험이나 그가 과거에 누구나 많이 장악하고 싶어하는 공급과 권력을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였는가 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납세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것 등이 검증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 보다 적격자를 인용하는 길이 되며 또한 인사권자도 추천 임용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지난 4월 29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는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민포럼을 열었다.

재산공개이후 '깨끗한 공무원 뽑기'에 귀추 주목

검찰·경찰·법관 등의 요직에 청문회를 거쳐 임명

이러한 방법은 인준을 요하는 직위의 수가 약간 증가되었으면 한다. 특히 중요한 권력직, 중립 남용되었던 직위, 이로인하여 절대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과 불만, 더나아가서는 한국정부나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게 하였던 직위들이다. 들께, 이들 중 특히 중요한 권력직, 예시하면 종래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정권이 이렇게 직위의 사적, 당파적인 장악으로 권력의 횡포와 돈의 동원을 통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해 왔던 직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법관, 안기부, 군간부, 국세직, 인사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므로써 보다 막강한 권력의 중립화, 공평한 행사를 강요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민주화, 작은 정부, 부정부패가 감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바람직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셋째, 다만 절차나 진행중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인적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것. 이것을 명단과 같이 국회에 제출할 것.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우선 길게 하지 말 것. 질의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질의, 임용될 직위가 요청하는 자격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하며, 혹시라도 사적 감정이나 인격모독적인 내요의 공개방송을 통한 질의는 극구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홍승준 교수는 "여하튼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강조해 왔을 뿐만아니라 일을 조직이나 돈 지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독립변수적인 사람이 한다는 공지의 이론에 비추어서도 전술한 소수의 권력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았으면 한다" 라고 청문회 제도의 긍정적 검토를 여러 참석자들에게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학술단신

민교협 강좌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

민교협 서울지회에서는 오늘 11일부터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강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를 일별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발전적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70년대는 인권운동의 시대요, 80년대는 민중, 민족운동의 시대, 90년대는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환경운동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90년대에는 80년대에 가졌던 강한 이데올로기들이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지금 전개되는 상황처럼 환경운동은 탈이념화 되어야 하는가, 또는 탈이념화가 필수적인가, 아니면 환경운동은 이념적 배경을 가져야만 좀 더 전진적 지세를 취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일정 및 연사

5월11일(화) : 환경이념과 동서양의 지역관—양재혁(성균관대)
5월13일(목) : 생태사회주의와 녹색정치—문순홍(경희대)
5월18일(화) : 환경론의 자본주의적 해석—최병두(대구대)
5월20일(목) : 환경운동과 시민사회론—배동인(강원대)
5월25일(화) : 환경법, 정책, 행정의 국내현실—이해찬(민주당 국회의원)
5월27일(목) : 중합토론, 한국적 현실에서 본 환경운동의 이념화 가능성—김세균(서울대), 이시재(성신여대), 최열(환경운동연합)

시간 : 7시~9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신청방법 : 5월 10일까지 전화로 신청(888—3683)
수강료 : 2만원

본교대학원 학술강좌, 자동차 경주대회

'우리시대의 좌표'라는 주제아래 열리고 있는 대학원 학술강좌, 그 두번째 강좌는 '제1회 파리—모스크바—북경 자동차 역전 경주대회' 참가 뒷이야기이다.

본교 불어과 이재영교수로부터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CIS, 중국등 총 1만6천824㎞의 거리를 완주한 경험담을 들어 보는 내용이다.

일시 : 5월 19일(수) 오후4시
장소 : 본교 대학원 6418호

서울캠퍼스 사회과학학회연합장 유재준군을 만나

서울캠퍼스 사회과학학회를 중심으로 학회연합이 구성되었다. 각 단위학회 체계상의 한계점과 많은 문제의 대안부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온 사회과학학회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시도한 학회연합은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된다. 그 구성은 영어과 두개의 사회과학 학회와 독어과, 러시아어과, 서반아어과, 중국어과(타오름), 한교과, 불교과의 7개과 8개 사회과학학회로 되어 있다.

학회연합장을 맡고 있는 유재준(서양·영어2, '여명' 학회장)군을 만나 학회연합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학회연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별학회가 자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체제입니다"

▲학회연합의 제기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과학학회의 현실은 다음 학회원을 받아 제대로 이끌어가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학습커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의 80년대 선배들이 학습하던 커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정세와 학회원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회연합은 이런 커리의 부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굴하여 커리의 안정화를 이룩하고 학회활동의 모범을 찾아 교류할 수 있는 틀거리 입니다. 그리고 주제발표회나 포럼을 진행하여 각 학회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발시켜 내용의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학회교사의 제교육 등 많은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학회연합의 구성형태는 어떠합니까?

학회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와 여량이 되는 학회에서 1인정도 구성되는 고민과 기회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스텝진이라 부릅니다. 스텝진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고민해 기획안을 올리면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고, 통과된 안은 다시 단위학회로 내려가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학회교사 교양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교육을 하고 격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모임학회 상황이라던가 학회발전을 위한 여러 내용들을 담을 것입니다. 5월 중순 쯤, 주제발표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스텝진이 각 단위 학회 활동과의 중첩으로 활동이 가중될텐데 단위학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까?

다른 학회연합도 집행할 수 있는 사람과 사업의 미비로 심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역량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회연합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 개별학회에 자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일 뿐이죠. 활동도 각 학회의 고민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집중될 것이므로 단위학회 활동과의 중첩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혜 기자>

신문발행부수 조사기구

소금상자

ABC(Audit Burean of Circulations)는 신문·잡지 발행사가 자진해서 보고한 간행물의 부수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검토하여 그 사실을 가입회원사에게 알려주는 기구를 말한다.

언론사의 재산공개이며 광고료 책정기준이 되는 부수공개는 더많은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신문사들 때문에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포장도 뜯기지 않고 버려지는 신문지만 년간 6백50억이 될 정도로 환경오염과 국가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무한 양적경쟁은 질적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발행부수 공개로 언론사와 광고주 사이의 공정한 광고요금이 책정되며 사이비 기자의 광고청탁이나 촌지성 광고집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 ABC협회는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감사(公査)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신문사들의 반대로 본격적인 공사실시 시기는 의문이다.

대우는 이제, 해외거래선의 개발·미수금국 입성·수출시장 확대 등 1967년 창업 이후 추구해온 시장개척 차원의 기업활동을 한단계 끌어올려, 국내 기업중 가장 넓은 65개국 86개 지사망과 27개국 48개 현지법인을 중심축으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략사업의 현지화를 추구하는 「세계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우는 악화된 오늘의 국내외 경영환경을 어느 기업보다도 효율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두터운 세계상벽을 헤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의 경우 이미, 미국·프랑스·영국 등지에서 반도체 및 전자렌지·VCR·컬러TV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진경제권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상태이며, 가격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 차원에서 중국 및 베트남·미얀마 등의 아시아, 동구권국가, 중남미 등지로 생산공장을 이전, 이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해외 현지 생산 및 독립경영체제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자동차 메이커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굳산 종합자동차공장의 첫 삽을 뜬 대우는, 우즈베크공화국에 새워질 18만대 생산규모의 국민차공장을 포함한 중국·베트남·이란·남미 등지에 해외 자동차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메이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대우는 이밖에도, 남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일본 건설시장을 헤치고 들어가 대규모 트윈빌딩인 '아시아 정보교역센터'를 건설중에 있으며, 리비아 대수로공사 이후 최대의 해외건설공사인 총공사비 10억불 규모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우는 해외건설부문에서 오늘날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벨지움의 CMB사를 인수하여 '90년에 유로대우사로 출범한 대우중공업은 이미 우리의 기술로 유럽 현지에서 각종 중장비를 생산, 전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유럽의 기업으로 —
아시아에선 아시아의 기업으로 —
이제 대우는, 앞으로도 脫국경화 기업경영전략인
「세계경영」아래, 깨다로운 규제장벽을 극복하는 전략사업의 현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현지판매의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에 앞장섬으로써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넘는다!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오늘날 —
대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경영한다' 는 기치 아래 탄탄한 기술자립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産·學·硏공동으로 정보통신·자동차·전력에너지·생산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을 연구하게 될 고등기술연구원, '81년 이후 500여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의 해외연수, 기초과학 집중투자 및 육성, 노벨상의 꿈을 실현할 대우 기술상·발명왕상 제정, 대우 기술위원회 발족 등이 기술대우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입니다.
특히 총5천여원을 들여 용인에 건립하는 고등기술연구원은, 일본 SRP(Soft Research Park)내의 대우연구센터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대학의 기술석학 및 R&D센터, 생산현장의 상품기술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완벽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1등 상품을 탄생시키는 우리기술의 메카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기술자립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정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독자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세계와의 기술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기술로 선진 기술장벽을 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세계경영」의 대역사를 펼쳐가겠습니다.

세계의 자본시장을 뚫는다!

텃세와 규제가 심하기로 소문난 세계 금융시장의 메카, 유럽과 미국 —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부문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옴과 동시에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해왔습니다.
'91년 대우는 단독으로 런던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본산인 뉴욕에도 현지법인을 개설함으로써 선진 자본시장의 핵심지역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90년 헝가리와 합작설립한 MHB-DAEWOO BANK는 해외금융투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 여세를 몰아 올해2월에는 Magyer Daewoo Securieties를 설립하는 등 대우는 우리자본의 국제화를 어느 기업보다 앞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확대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세계 현지 금융시장의 공략에 이르기까지 — 대우는 앞으로도, 거대한 국제 자본시장을 현지에서 직접 뚫어가는 공격적인 「세계경영」전략으로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해외의 자원을 우리의 에너지 자원으로!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 세계 각국과 천연자원을 합작개발하는 형태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원공급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 미얀마의 해상가스전, 캐나다 우라늄 광산 개발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야쿠츠 — 사하 공화국내의 가스전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야쿠츠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수송될 예정인데, 앞마전 대우는 이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합의를 계기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우는, 현지개발을 통한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입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자, 21세기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로!

'세계가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궁정적 명제 아래 끊임없는 개척의 발길로 창조한 「대우神話」로부터 한민족 국제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세계경영」에 이르기까지 —
전세계 곳곳에서 땀으로 얼룩진 개척의 화신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우의 해외대장정은 중단없는 한민족 도전의 발자취로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창업 이래 줄곧 그랬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역경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속에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며, 미래를 향한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이라는 진취적 행동철학으로 위대한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대회

진실을 외치라, 그대 한총련!

지난 25일(일)부터 27일(화)까지 전북대에서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전체인원 1천6백명중 9백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한총련건설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총노선을 확정'하여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총련 초대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치외교 88) 군이 9백27명이 투표해 8백20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대의원대회 사회를 본 전북지역 학생협의회 의장인 허현준(전북대 총학생회장, 회계 88) 군이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는 총노선 수립, 강령과 규약 채택, 의장선출과 용립, 통일방안 합의등을 힘차게 확정하는 것은 백만청년 학생 의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인 한총련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총련 건설은 각급학생회의 안착화와 대중조직으로 성장한 전대협의 발전적 계승과 변화된 정세와 조직활동의 전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총련 기관지 <대학생> 편집국장 김지석군은 "자주적 학생회의 제기와 학생회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생활 학문·투쟁의 공동체로 나가고 총학생회에서 과학생회에 이른 조직의 틀서를 만드는 것과 함께 지역단위 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총련의 건설"을 말하고 또한 "대선이후 새롭게 조성된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학생대중의 관심과 생활속에서 높여 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총련 건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생활, 학문의 영역을 전문적 역량이 없는 지금의 학생회 활동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과 변화된 정세속에서 자주적 학생회의 정치투쟁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한총련 총노선에서는 생활과 학문에 눈을 돌려 학생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함께 변화하는 관계로 밝히고 있다. 또한 예전의 일방적인 선전, 선동을 통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 학생들이 객체가 되었던 운동방식을 탈피해 한사람 한사람이 진솔하게 많이 만나는 것을 조직적으로 진행해 집단의 정치력을 높여내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이야기 한다.

총노선에서는 지금의 학생들의 정서호름을 개인생활과 경제적 욕구가 높은 반면 집단적으로 모아지지 않아 개인적삶과 사회적 삶이 통일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또한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통치방식을 선거를 통해 수립된 민간정부이면서 외세 의존적인 경제정치구도를 가져 부문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지지기반 확보를 하고 경제위기는 민중에게 전가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한총련총노선에 대해 조선대 이승영 공대 학생회장은 "총노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학생회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충남대 김문원 총학생회장은 "우리 운동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93년의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해 총노선이 간부와 학생의 활동의 상을 제대로 지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기현(중앙대 총학생회장) 군은 "그동안 학생운동의 잘해왔던 부분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심으로 총노선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나온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이후에 광범위한 의사수렴을 통해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을 밝히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주적 학생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핵심적 내용은 학문의 영역인데 부분계열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 학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올바른 학문, 학원,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 단대, 학생회의 전국적인 연합 조직 건설과 중교, 문예, 언론등 부문조직의 활성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번 창립 대의원대회에 카톨릭학생회와 전국문예, 탈패, 노래패연합등이 대의원자격을 부여 받아 참가를 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을 확정하였는데 김병삼 한총련조통위 위원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전대협 통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91년부터 제기된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를 총화하고 통일의 전제조건, 통일국가의 이념, 통일국가의 구성,연방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 연방정부의 임무로 되어 있다"고 말해 5월부터 각지역, 대학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합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단과대학생회장까지 포괄하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넓어지고 1천6백여명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성이 확대되는 점과 백만학도의 생활과 학문을 중심으로 투쟁을 통일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회장을 되장한 '민중권력 쟁취와 한총련 민주적 강화'를 표방한 일부 대의원 중 한림대 조한경 총학생회장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은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요소이다'라고 밝혀 한총련이 서로다른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담아내는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심재 이번 대의원대회 기간동안 많은 대립이 있었다. 전북대 총학생회와 한총련 민주적 강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와의 마찰, 그리고 준비위원의 단독집회와 회의 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집단퇴장에 의한 권한 포기 등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들이며 또다시 제현되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의 한총련의 문제를 노정했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의 구현을 더욱더 절실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만난 많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몇가지의 단서가 있다. '학생들이 정치적 동원용이라는 시각을 버리고 주체적인 입장으로 학생회관을 정립한다면은…'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간부들로부터 혁신을 이룬다면…'

마지막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학우들을 만다는 우리의 모습에서 한총련의 모습은 변화되고 우리의 앞길은 찬란하고 승리는 낙관적이다"라는 한총련 김재용 초대의장의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한총련은 나의 조직으로 백만청년의 가슴에 살아 있는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정리 : 사회부>

광범위한 의사수렴과 민주적 강화 절실

한총련 총노선 수립 및 통일운동의 방향 확정

◇5·3항쟁의 전모를 듣는다

"5·3 동의대 항쟁은 더이상 '뜨거운 감자'가 아닙니다"

10분도 채 안되는 면회시간을 마치고 푸른 옷을 입은 아들의 뒷모습을 초로의 어머니에게 보이고 면회실 문을 나설때면 나는 꼭 하늘을 봅니다. 울지 않으려고!

—박세진 함소이유서중—

89년 5월 3일, 한말의 총성과 수명의 전경피남, 무모한 과잉진압속에 치솟은 화재, 소위 동의대 사건!

사건의 현상만을 두고볼때 이것이 전부이다. 그날 새벽 전국의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긴박하게 전개되어 왔던 공안 정국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가져왔던 동의대 사건이 만년을 맞이했다. 일개 지방대학을 국내적·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던 5·3항쟁은 아직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운동권내에서조차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고 있다.

7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학생들이 '살인자'라는 오명으로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5·3항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89년 5월 1일 동의대 시위학생들을 향한 24발의 총기난사. 다음날 총기난사 규탄시위도중 시위대 속에서 정보수집 중이던 사복경찰 5명을 붙잡아 중앙도서관에 연행하고 철야농성을 전개한다. 이에 경찰은 5개중대 8백여명의 경찰병력을 1백여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중앙도서관 건물에 투입하여 구출작전과 진압작전을 전개하던중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여 세미나실에 진입하였던 전경 가운데 3명이 불에 타 죽고, 4명이 추락사, 경찰관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5·3항쟁 동지회' 회장 성해경(법학·82)군에게서 5·3의 진실을 들어 보았다.

▲5·30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모순이 폭발한 것이 아닐까요.

예, 4월 30일 노동절집회 원천봉쇄와 이에따른 5월 총파업설로 이어졌고 부산에서는 부산교대 이정현 학우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머리를 다쳐 뇌사상태였고 전보정치연합 임용선 동기가 분신투쟁을 했습니다. 또 1일의 총기난사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이 모든것이 폭력정권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5·3을 왜곡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여론재판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화재사건이라면 꼭 책부되는 '화인감식서'조차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채 소설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재판부는 일관했습니다. 검찰측은 학생들이 미리 다량의 신나와 석유를 뿌려놓고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살아남은 전경들의 증언을 보면 바닥에는 아무런 인화물질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험결과 화염병 투상지의 위력으로도 천장의 석고보드가 녹아버리고 철근까지 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압과정에서 어떤 위력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과정에 일어났을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고 그 무기는 소이탄이나 열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5·3동지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전경출신 중 일부는 당시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조금씩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집하고 5·3동지회 차원에서 정치적 사건의 배들을 풀기위해 노력중입니다.

5·3동지회는 지난 89년 부산구치소에서 5·3의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진상규명과 아직 수감중인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출소한 친구들의 복학투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학투쟁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학투쟁은 단순히 복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5·3의 진상규명의 배들을 푸는 구체적인 출발입니다. 또 5·3당시 학교당국은 경찰의 학내진입을 방관한 학교당국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학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장실 점거농성 17일째를 끝으로 농성은 풀었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많은 난제가 있기때문에 복학후 계속 싸움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의대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5·3항쟁을 보는 견해는 어떠한가요.

아직 정리되지 않아 뭐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17일간의 농성기간 중 1천여명의 학생들이 지지방문을 와 주었고 모든 과와 동아리에서 지지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전국의 1백만 학생에게 하고싶은 말은

아직도 대부분 5·3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89년 당시 조작된 보도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3은 한 학교는 전경으로 끝나기 진압작전에 참여해야 했고 또 다른 한 학교는 정의를 외치며 화염병을 들어야 했던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비극입니다. 살인적인 행동을 밥있던 우리도 희생된 것처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기해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옥선 기자

화재의 진상규명과 함께 복학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운동 최대의 인명피해 과연 가해자는 누구?

학과장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글

우리 학과장일동은 오늘 아침 긴급 학과장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실시키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재단이사 불신임투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주동하는 총학생회와 이에 동조하는 학생제군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학과장일동은 재단측에서 총학간부들에게 학생들의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사항들에 관해 몇 차례에 걸쳐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그런 내용들이 일반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됨으로 재단측에서 전외대인들에게 공개서한으로 '의문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올들어 학교는 그동안 다수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향후 5년동안의 외대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정립하여 왔다. 그리고 재단은 이와 같은 학교의 뜻을 이해하여 재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이 학교가 발전의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은 이에 보조를 맞추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면거부하고 특정인사를 퇴진시키겠다고 나오는 뜻은 어떤 논리적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더욱이 학교와 학생대표들은 외대 중장기발전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그 위원회에서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 등 다양한 외대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발전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에 따라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완료되었고 외대 중장기발전 계획작성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기본구상의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학생들의 불신임투표행위는 외대 구성원들의 발전적 대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외대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반지성적 행동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학과장일동은 사랑하는 외대학생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에 따른 행동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학과별로 추진할 대학발전운동에 학과학생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1993년 5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과장 일동

□문화시평－현시대 문학의 좌표는

이성을 딛고 역사속으로

한시대의 문학은 어차피 그 시대가 던지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상이란 말이 얼핏 대단히 막연하게 들릴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각양각색으로 우리 의식에 비쳐지는 인상은 결코 범상한 것이 아닐 것이며 그 내용인즉 고뇌

천상의 밤이 아닌 땅에서 밥을 먹는게
또한 작가이고 보면 이밥이 안겨주는 인상이며,
맛이 어떠한지를 의당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터이다.

에 가득찬 이해키 어려운 특수한 것임 게다.

그것을 문학은 이해하고 해독하며 건전한 인간정신과 양심의 추구라는 과제를 통하여 무시로 가슴에 새겨야할 일이다.

즉 시대적인 혹은 초시대적인 문학창작의 이념도 따지고 보면 오늘이란 시대가 짜내는 인상을 발판으로하여 출발하는 것이라면 작가가 자신이 사는 오늘이란 시간의 의미에 대해 구태여 이의를 제기할 사치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천상의 밤이 아닌 땅에서 나는 밥을 먹는게 또한 작가이고 보면 이 밥이 안겨주는 인상이며 맛이 어떠한지를 의당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터이다.

어찌 그뿐이랴. 한걸음 나아가서 밥이 지향하는 바람, 미래 그 순수성까지도 그 용광로의 열기는 순화시키고 고양하여 인류의 참다운 행복에 다리를 놓는 행운을 맞아야할 일이다.

90년대 문학은 8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별달리 눈에 띄는 특수성이나 특질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2, 3년 사이의 문예창작의 여러 경향들은 한마디로 부기력과 침체의 징후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한다.

그것은 80년대와 대비될만한 치열한 상황의 문학적거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든가 시대를 돋고 살찌게하는 구체적이며 진취적인 실제 평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동안 팽기를 떠는듯 하더니 90년대를 맞아 제2 제3의 선언적인 무슨 행사(?)도 있는 것같지 않다. 문학을 두뇌로만 생각한다든가 본능으로만 접근하는 일

네다보는 안목이 아직 서지 못했다는 이른상의 이유가 있음직도 하려니와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시대, 역사를 열어가는 치열한 문학 정신의 부재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일은 민족·민중문학의 현황에 있어서나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에 있어 다같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와 평론, 소설이 보조를 같이하여 정체기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다.

근지에 시집이 숱하게 나왔다. 거리에 지동차가 범람하는 것처럼 시인은 많고 또 시집도 홍수를 이뤘다. 그뿐으나 이중에 우리의 관심을 끈 책이 과연 몇권이나 되었을까.

한편 소설은 거의 흉년이나 마찬가지로 창작은 웬 정도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른바 이야기소설에 치여서 그것들은 극히 소수의 독자밖에 얻지 못하는 고전을 겪는 것이며 평론은 대부분 이론과 원론에 치우친 것들 뿐이고 소설과 시를 북이 흔히 시행착오로 낙착되는 선례를 보아온 우리들로서는 이성을 딛고 역사속으로 침잠해들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로 깨우치는 바다.

분단의 모순이야 다같이 나눠 떠맨 짐꼭 아니랴. 80년대에 해체깄던 암흑이 지금 이 시간에 더 예각적으로 우리의 의식(무의식까지도)을 포위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역사를 벗어나서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절실한 것이 있는 반면에는 절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적어도 통일까지는 절실한 것, 보다더 참다운 것, 우리모습다운 것을 향하여 작가는 자기체신을 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진실이 생활화되고 정신을 고양시켜낱 때 작품은 폭과 밀도를 얻게 될 것이오 주체적인 빛을 띨 것이 아니겠는가.

김규동
(시인)

문화 옹달샘

역사의 수레를 끄는 지혜
－조일 지음－

기존의 체들에서 보게되는 경제의 제법칙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이나 자본주의의 무조건적 옹호,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상의 문제, 관심을 올바르게 지적해 주는 책이다.

<한·3천원>

권력과 언론
－강준만 지음－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언론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을 주요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학민사 6천원>

학원 자주화 운동론
－최형진 지음－

88년 학원 자주화 운동론이 제기된 뒤 끊임없이 실천과 연구를 통해 풍부하게 쌓여진 사상이론적 제부를 총화한 책이다. 또한 현시기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여자 셋이 모이면
－박혜란외 지음

'여자 셋이 모이면 소망을 품고, 차별을 거부하고, 통영을 바꾸며, 내일의 바람을 일으킨다.'

여자셋이 모이면 집시가 깨진다는 등, 압력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는 등의 우리 고유의 관념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는 여성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진취적 태도를 취하자는 주내용이다.

<동녘펴냄 값5천원>

□주제별로 보는 볼만한 비디오

Ⅰ. 정치문제

이 나라 공직 사회엔 과연 제대로 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일까? 요즘 신문을 들여다보면, 대답은 회의적이기만 하다. 권력은 제 욕심 채우는데 악용되고, 그 권력은 돈주고 사고, 돈주고 산 권력은 당연하게도(?) 다시 제 마누라, 자식, 손자 명의의 부동산 사모으는데 악용되고…

비록 남의 나라 미국의 이야기지만 '대통령의 음모(SKC)'와 '영광과 오욕(CIC)'은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다룬 작품이다. 이 두작품은 미국 정치 사상 가장 추악한 정치 스캔들로 손꼽히는 두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란-콘트라 사건'을 각각 다루고 있다.

알란 J 파큐라가 감독한 '대통령의 음모'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는 두 신문기자를 통해 집권 여당인 공화당 정권의 구조적인 부패를 보여준다.

대통령…, 워터게이트사건 다뤄
영광과…, 이란－콘크라사건 조명

닉슨의 대통령 재선운동이 한창이던 어느날(로버트 레드포드)는 도둑들이 전직 CIA등의 정부기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단의 의혹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한다. 한편 검찰은 서둘러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인 중의 한명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고액의 수표가 닉슨의 재선운동 분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을 주목하고 취재를 벌이지만 이들의 취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힌다. 워싱턴포스트지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FBI와 검찰의 조사가 흐지부지 된채 워싱턴포스트지는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두 기자는 종인들에 대한 감시와 압력을 통한 취재 방해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일회적이고 몇몇 반공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전직 법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이 포함된 거대한 음모이며, 적어도 1년이상 지속된 민주당 흑색공작과 긴밀히 연결된 사건임을 파헤친다. 결국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닉슨은 사임하게 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0년대를 보낸 미국은 80년대 후반에 또한번의 커다란 정치 스캔달을 맞게 된다. 마이크 토브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영광과 오욕'은 레이건 정권의 '이란-콘크라'사건을 재조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음모'가 사건을 파헤치는 두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치는 반면 마이크 로브는 사건의 주체이자 후에 희생양이 되는 올리버 노스라는 한 인물의 출세와 몰락을 통해 국가 권력 전체가 결탁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월남전의 영웅인 노스 중령은 정부의 정보기관에 발탁된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노스 중령은 신념전 전서를 구축하고 있던 레이건 정권속에서 제3세계의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다가 니카라과 등에서의 공작활동과 반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탄탄한 자리를 획득한 그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의회 조차 속이고 불법적으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콘크라군은 지원한다.

결국 이사건은 폭로되고 노스 중령이 사건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과연 이란-콘트라 사건은 맹목적인 반공주의자 몇몇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가? 노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건은 과연 존재하지 않았을까? 답은 영화속에 있다.

서울무비

우리말의 쓰임새는 지면
사정상 이번주 쉽니다.

□공연이야기－'천지인'

민중 락그룹 탄생하다

민중락그룹이 탄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그 의문은 민중음악이면 민중음악이고 락이면 락이지, 민중락은 뭔가하는 궁금함 일것이다.

이전의 민중가요 정서와 가사는 비슷하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노래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다만 '락'이라는 형식을 빌은 것이다.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대중화되있는 음악의 형식을 고른 것이고 '락'이다. 락과 민중가요의 정서가 과연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하는 난제를 풀기로 자처하고 나선 그룹이 있다. 바로 민중락그룹 '천지인'이다.

이들중엔 본교출신이 한감개도 4명이나 있었다. 키보드와 보컬을 겸하는 리더 김성민씨는 '누가 나에게 이김을 가리하지 않았네'를 작곡한 제아음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김성민씨의 주도아래 작년 9월 결성이 되었고, 꾸준한 연습끝에 이번 공연을 열게 된것이다.

지난 4월25일(토), 26일(일) 양일간 열린 '천지인'공연은 관객은 천명안팎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충실한 공연이었다. 가난한 부부가 명동에 나가 겪게 된 경험을 다룬 '우리들의 외식', 노동자노총각의 구혼을 내용으로 한 발랄한 분위기의 '어느 노총각의 희망사항'등은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 류금신, 노래공장, 서기상씨등이 초대손님으로 나와 흥을 더욱 돋구어 주었다.

민중가요의 정서와 락의 형식이 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

그러나 몇곡을 제한 나머지 곡들이 형식이 획일화되어 다소 지루함을 준것이 아쉽다. 아직까지 '락'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는데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락'음악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그들도 대중들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더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콘서트와 음반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들의 '실험정신'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천지인'과 관객모두의 노력이 절실해진다.

<문화부>

□22년만에 음반낸 김민기씨를 만나

과거의 터널을 뚫고 더먼 길을 가는 음악가

우리 음악사의 '신화'라고 불렸던 그를 실제로 만나보니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나즈막한 목소리와 조금은 어두운 표정, 시원하게 웃음 한번 터트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웃는 그의 모습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하는 안쓰러움(?)까지 자아냈다.

"탄압을 들쳐고 나자신에 대한 불안과 사람들에 대한 죄스러움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털어 놓는다.

이십대초반, 미술학도였던 그는 그림에서 풍경화를 그리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노

래로 만들어 양희은씨 등에게 주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받게 되었지만 정작 그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그렸다고 해서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받았다. 그가 만든 노래는 다른이의 이름을 빌어 발표되어야 했고, 만든 노래마저 난도질 당하고 변색되어 발표되어야만 했다. 그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전라도로 가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참삶의 기쁨을 느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정권이 고�기까지 했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숨한 사람들이 찾아와 음악을 권유했다. 그와중에 집이 불타는 액운을 다시한번 겪고 결국 그는 서울로 상경, 음악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아빠얼굴 예쁘네요'등 음반을 기획하고, 90년에는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대규모 공연 '겨레의 노래'를 기획한다.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못했지만 모두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후 그는 소극장 '학전'의 대표지리를 얼떨결에 떠맡게 돼 서울음반측에 음반을 내기로 하고 선금금을 받아 '학전'에 메웠다. 그 결과로 지난3월, 대중들에겐 반갑지 않을 수 없는 4장의 음반이 나왔다.

"이번 앨범은 지식들에게 제호적을 찾아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창작자에게 창작곡은 자식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곡들—그의 말을 빌자면 '양지'다—과 많은 부분이 바뀌어 발표된 노래들이 모두 제모습으로 나왔습니다." 4장의 음반안에는 최고의 애창곡 '친구' '아침이슬'외에도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 등이 수록돼 있다.

"단순히 빛을 갚기 위해서 냈습니다." 음반을 낸 이유가 소극장 '학전'을 떠맡게 되면서 서울음반측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음반을 통해서 돌아보게된 젊은시절의 노래들이 유치하고 치기가 어려 부끄럽기만 했다. 그런 노래들이 숨한 사람들의 눈물을 지어내며 애창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죄스러워 더욱 건덮수 세계로 전파시키겠다는 그의 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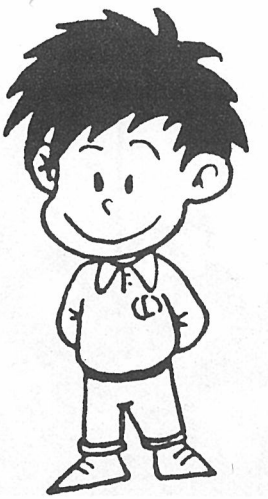
어두었던 우리의 과거사만큼 그의 과거도 어둡다. 끝없는 자기 학대와 자기 극복이 얽히고 설킨 그의 숨픈 인생역정은 군사독재가 만들어 낸 최고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단계에 서 있다. 20대 청년의 치기어린 음악이 아닌 중년의 원숙함이 깊이 배인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아픔과 내일의 희망이 한데 어우러진 대중들과 함께 하는 노래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4장의 앨범을 들고 우리곁에 돌아온 그의 존재는 반갑고, 너무도 든든해서 자못 기대스럽기만 하다.

<이진영 기자>

외통수가 외대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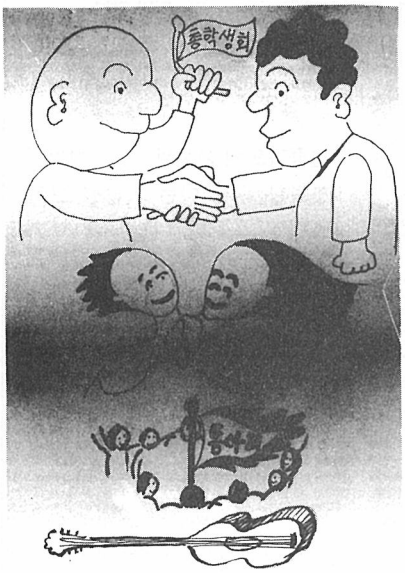
지난 5월 4일 발간 예정이던 외대학보 604호가 광고문제로 인해 학교당국과 학생기자 사이의 마찰로 인해 늦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잘지키는 여러분의 외대학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 대 학 보

그림돋보기 — 양캠퍼스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나



외대인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외대인인가. 단지 용인캠퍼스 학생들만 또는 서울캠퍼스 학생들만이 외대인인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양캠퍼스 모든 학생이 외대인이다. 서울캠퍼스에서 7천 외대인 또는 용인캠퍼스에서 5천 외대인이라 외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7천 서울인, 5천 용인인이 원칙이고 옳바른 표현이다. 이런 잘못된 표현 하나하나부터가 양캠퍼스간 이질감의 골을 깊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대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외대인은 용인과 서울이라는 또다른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런 상황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만 같은 외대이지 서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의식이 점차 퇴색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외대라는 같은 배를 탔고 평생 같은 동문이다. 또한 외대발전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서로의 단합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바탕으로 본보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양캠퍼스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양캠퍼스 연대의 깊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0일(금) 양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방향은 각캠퍼스의 기본적 특성이나 현재의 상황을 물어봄으로써 필소에 상대 캠퍼스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았고 양캠퍼스 연대의 깊을 물어봄으로써 앞으로 양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상대방 캠퍼스의 학생수와 총학생회의 연륜을 묻는 설문에서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그동안 쌓인 깊은 벽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다. 설문지에 응답한 반절 이상의 학생들이 상대 캠퍼스 총학생의 수를 몰랐고 또한 단지 소수의 학생들(용인 13.8%, 서울 7.9%) 만이 상대 총학생회의 연륜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 캠퍼스의 문제점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가용 캠퍼스의 협소(47%), 강의실의 부족과 기숙사가 없는 서울캠퍼스 교육환경의 부재(50.9%)를 정확히 꼬집었고 현재 캠퍼스 이전(51%)과 재단 불신임(21.2%)등의 이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또한 서울캠퍼스 학생들 역시 용인캠퍼스의 교통(64.3%) 문화시설부족(10.1%)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현재 첨예한 이슈가 용인캠퍼스에 없어서인지 학원자주화 투쟁(9%), 정치투쟁(6%)등 많은 시참에 대한 답을 했다.

다섯번째로 물은 앞으로의 양캠퍼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독자적인 활동후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용인 37.5%, 서울 39.3%)와 깊은 소속감속에 항상 교류해야 한다(용인 37.1%, 서울 26.3%)라는 의견이 많아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위 문제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물은 마지막 문제에 대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현재 잘 아루어지지 않지만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류를 응답했고(41.7%)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경우에는 양캠퍼스 동일 학과들 위주의 교류(43.6%)에 많은 응답을 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동아리나 학회들의 세미나 등을 통한 교류(용인 22%, 이문 27.6%)에도 답을 했다. 그러나 이런 답 이외에도 소수이지만 각 캠퍼스별로 독자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대해 학생들이 답한 결과를 보면 양캠퍼스간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 캠퍼스의 큰 문제점이나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작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 캠퍼스에 가지도 않고 가더라도 얘기할 사람 즉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 것이다.

우리 외대내에는 외대신악부, 독일어과 노래모임인 로렐리이 등 양캠퍼스 연합학회나 동아리가 있다. 이런 단체의 구성원들은 결코 상대 캠퍼스에서도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연합단체의 활성화는 두개의 외대가 아닌 하나의 외대형성의 주춧돌임에 틀림없다.

두개의 외대는 외대발전에 기시가 되지만 하나의 단결된 외대는 진정한 외대로 가는 길임을 상기하자.

<이훈성 기자>

설문조사결과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질문1. 당신은 현재 서울캠퍼스의 총 학생 수가 몇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앎 : 40명(37.2%) 모름 : 68명(62.8%)

질문2. 현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몇대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앎 : 15명(13.8%) 모름 : 93명(86.2%)

질문3. 현재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술형이므로 게재불가)

질문4. 서울캠퍼스에서 현재 가장 issue화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으므로 게재불가)

질문5. 용인·서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캠퍼스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교류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 43명 (40.6%)
외대라는 같은 소속감을 갖고 모든 일에 상호 연대하고 항상 교류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 40명(37.7%)
같은 외대라는 이름일 뿐이지 각 캠퍼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또한 발전방향 역시 각 캠퍼스 상황에 맞게 꾸며져야 한다 : 20명(18.8%)
기타 : 3명(2.8%)

질문6. 앞으로 용인과 서울의 교류를 위해 당신은 어떤 연계고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캠퍼스 총학생회의 교류를 통해 총학생회 주체로 정기적으로 전체 학생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듦 : 51명(47.1%)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동아리나 학회의 연합활동 : 25명(22%)
기타 : 4명(4%)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질문1. 당신은 현재 용인캠퍼스 1~4학년까지 총 학생수가 몇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앎 : 33명(43.3%) 모름 : 43명(56.7%)

질문 2. 현재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몇대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앎 : 6명(7.9%) 모름 : (92.1%)

질문3. 현재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술형이므로 게재불가)

질문4. 용인캠퍼스에서 현재 가장 issue화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형이므로 게재불가)

질문5. 외대가 서울·용인캠퍼스로 나뉜다는 현실적 조건에서 현재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만 같은 외대일 뿐이지 실지로 서로간의 교류나 외대로서의 공감대가 부족해 딴학교처럼 느껴진다 : 44명(58%)
여러가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외대인으로서의 동질성은 미비하지만 서로간에 이유없는 관심과 애착이 가는 정도이다. : 31명(35.5%)
같은학교라는 이유와 서로간의 학지, 세민전, 과행사등의 교류를 통해 같은학교학생이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 : 2명(2.6%)
기타 : 1명(1.3%)

질문6. 앞으로의 외대인의 의식속에 양캠퍼스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캠퍼스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교류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 30명(39.3%)
같은 외대라는 이름뿐이지 각각 캠퍼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또한 발전방향 역시 각 캠퍼스 상황에 맞게 꾸며져야 한다 : 21명(27.6%)
외대라는 같은 소속감을 갖고 모든일에 상호 연대하고 항상 교류하면서 활동해야 한다 : 20명(26.3%)
기타 : 1명(1.1%)

질문7. 그러면 현실적으로 양캠퍼스의 교류를 위해 당신은 어떤 연계고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캠퍼스 동일 학과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 35명(43.6%)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동아리나 학회의 연합활동 : 22명(27.6%)
기타 : 1명(1.2%)

겉핥기식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명수당(明水堂)

요즘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 문민정부의 부패척결과 사정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듯 하였는데, '분야별로 균형있게 조율'된 사정이나 '지체정화' 방식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개혁의지의 퇴조가 아닌가 염려된다. 지난날 군사정권들도 부정척결이나 사정을 폭력에 가까운 과격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나 그것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났기 때문에 총체적 부패를 낳게한 것이 아니었던가.

새정부의 경제 회생 의지도 평가받아야 할 것이지만, 선경기활성화 후개혁을 골격으로 하는 고통분담논리에는 참신성을 엿볼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들도 경제입국의 지상명제하에 국민생활의 희생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개인보다 기업이 유리하고, 기업중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등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았던가. 고통분담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고통을 분산시킨다는 것이 될 것이지만, 기업이 1년간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동결하는 것이나 고위 공직자의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는 고통은 말하자면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데 반하여, 임금인상이나 추곡수매가 인상요구를 지체해야 하는 근로자나 농민의 고통은 개인적 직접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축재자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인가. 부정축재의 징위를 공개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고통분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의 배경이 없이 축소된 재산공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제마약조직의 '검은돈 세탁소'로서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만난을 극복하고 금융실명제는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좋아졌다는 것은 정상상태가 개선되어 보다 좋아진 것이지, 비정상상태가 정상상태로 바로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비정상상태가 정상상태로 바로 잡혀가는 것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옳게 되는 것, 제도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두고는 옳은 세상으로 되어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사회로 되돌아오는 한 단면을 최근의 용공음해사건에 대한 사과에서 본다. 피해자측에서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셈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비지성적, 비도덕적 발상은 용납될 수가 없다. 용공지에게 사형까지도 했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신문기자들도 그렇게 상식이 없는지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일을 본다. 부부(夫婦)를 표현할때 부(夫)의 성을 들어 최씨부부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미국으로의 외화밀반입과 관련한 기사에는 노씨부부(盧夫)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것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하고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호의적인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아직도 권력에 영합하는 사회풍조가 온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원석 <법학과 교수>

징검다리

희망도서 신청에 대해

중간고사도 끝났고 봄이 깊어감에 따라 학생들이 책을 많이 찾게 된다. 물론 지신의 비용으로 책을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들을 이용한다면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도서관에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신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때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용인캠퍼스 1층, 서울캠퍼스 2층 도서관에 구입희망도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책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한 후 현실적으로 책이 곧바로 구입되는 건 불가능하고 시중에 책이 나왔을 경우는 1개월 정도 원서나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책은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책의 종류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정서를 헤친 우려가 있는 책이 아니라면 어떤 책이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구입신청을 하고 신청한 책이 비치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는 타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학교 도서관장 명의의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이런 경우 타대학 도서관의 책을 빌릴 수는 없고 도서관내에서 책을 열람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제도 지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희망도서 신청의 경우가 매우 드물고 도서구입 신청을 한 후에도 책이 나왔는지 찾으러 오는 학생의 수가 드문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제도 이외에도 학내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폐기될 수 밖에 없고 필요할 때는 후회할 수 밖에 없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야 할 것이다.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회장과의 대화)

신입사원들을 초급 경영자로 인정하고 경영방침은 물론 회장의 개인 신상에 이르기까지 회장 자신이 직접 대답해 임하는 회장과의 대화. 75년부터 신입사원 연수의 한 과정으로 시작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회장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신입사원들의 입체감을 제고시키는 선경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회장님께서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휴식시간중 신입사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최종현 회장

신입사원과 회장의 진솔한 만남의 장(場) — 회장과의 대화

아차산 기슭에 자리잡은 선경 연수원 101호.
직장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선경인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장과의 대화. 바로 풋내기 신입사원들이 경영의 대선배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올바른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한 방안.
6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이 시간에는 중역들의 경영회의에서나 나올법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나온 이들의 당찬 질문입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가장으로서의 점수는 몇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쯤되면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던 회장도 어려운 시험문제를 받아든 학생처럼 난감해 하지만 이내 웃음 띤 얼굴로 질문에 응하는 모습은 정겹게만 느껴집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가와 말문을 열게 만들어 잠시의 휴식마저 빼앗아가는 신입사원들. 이들을 볼 때마다 기업 경영의 새 활력을 찾게 된다며 기꺼이 대해주는 회장의 모습에서 신입사원들은 믿음직한 선배 경영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SUNKYONG
鮮京그룹

개혁의 환상속에 드러나는 치부, 노동정책

노동악법철폐, 경제개혁, 임금인상 등 요구

구속·수배·해고 노동자들의 원상회복 초점화

5월1일 연세대 노천극장, 4만명의 노동자·학생이 발딛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앉고, 더러는 산에 올라가서서 1백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치루고 있었다. 때론 숨죽이고, 때로는 4만의 목소리로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투쟁을 노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개회사에서 단병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이 말한것처럼 이날 기념대회에 모인 노동자들의 소망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뭐길래?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가 보장되고, 산업현장에 민주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며, 금융실명제 실시, 30대 재벌 총수 제산공개등을 통한 경제개혁이 뒷받침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김영삼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외시한 채 노태우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임금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휴일·휴가 축소'등 근로기준법 개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1백여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갇혀있고, 5천여명의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석방하거나 복직시키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감원과 집단해고가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지행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국을 건설하지고 했다.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천만 노동자에게 있어 변한 건 없다. 있다면 대량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 노동강도 증가, 노동법개악 등일 뿐이다.

이날 집회에서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김영삼 정권 아래서 가장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것이 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은 출범이후 첫 사업인 사면에서부터 드러났다. 건국 이래 최대 사면이라는 3·6사면에서 구속 노동자 1백25명중 단 15명이 풀려났던 것이다. 아직도 1천여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감옥안에 있고 50여명의 수배자 그리고 민주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5천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4월7일부터 24일까지 18일동안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해 단식농성을 전개하였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투쟁보고를 하였다.

"우리가 원하는건 땅투기도 아니요, 아들, 딸을 부정입학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오. 우리가 일궈놓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투기지 제산은 신성한 노동력과 지주적 단결권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노동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 정유광(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씨의 말이다.

지난 3월 10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해고자복직 지침을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해고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4월 7일까지도 한명도 복직되지 않았다.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변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서울·인천지역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 해고노동자 이백여명이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사무실에서 8일 오후부터 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중 37명의 대표단이 단식에 들어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한기가 허기진 몸속으로 스며들고 한명, 두명 쓰러져 갔습니다. 7명이 탈진해 쓰러졌지만 모두들 꿋꿋하게 투쟁했습니다. 우리들 단식농성의 목표는 구속·수배·해고 노동자들 문제를 사회쟁점화 시켜 그들을 원상회복시키고 93임금투쟁의 도화선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 청와대 항의방문, 탐골공원 집회투쟁 등을 벌이며 단식을 해왔던 이들은 '김영삼정부의 수배, 해고, 노동자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농성을 풀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난 5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플른, 뼈를 깎는 18일간의 단식농성이 흡족할만한 성과를 본 것은 아니었으나 구속노동자 석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받았고 수배노동자도 자수해오면 수배해제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직투쟁은 아직도 멀고 힘든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고 여기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싸워줄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정유광 전해투위원장의 말처럼 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수배·복직문제도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6공의 폭압적 노동정책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제자리 달라는 겁니다."라는 배석 금지 조항', '근로자 파견법'등의 법률의 삭제와 '집단해고 규제법', '고용 보험법',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등의 법률제정·개선을 요구했다.

연세대에서의 기념대회를 마친후 4만의 거대한 인파는 여의도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끝이 없을 것같은 사람산맥, 처음으로 가두시위 허가를 받은 이날의 거리는 백골단도 없었고 최루탄도 없었다. 교통정리 경찰과 노동자, 학생 2백여명으로 구성된 질서유지단이 함께 행진을 돕는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옴 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모습으로도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은 숨겨지지 않았다. 행진에 앞장선 해고노동자들의 당당한 요구와 4만의 한목소리로 외치는 '금융실명제 실시', '노동악법철폐', '임투승리'등의 사항중 그 어느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놓여있는 대정부 투쟁을 아무도 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지혜 기자>

93년 5월에 서서 91년 5월을 되돌아 본다.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을 소리높여 외쳤던 그 해 5월. 동지들 앞은 분노한 전사들은 거리로 거리로 밀려나왔다. 적들에 대한 분노는 결국 온몸으로 외쳐졌다. 5월 총궐기를 결의하며 식발을…

잊을수 없다. 5월, 분노의 함성

4월 27일부터 5월말까지 가두투쟁 계속, 시국토론회, 일일찻집등 활동 활발

'수많은 동지들 죽어가던 밤/분노를 삼키며 울기도 했던/나의 청춘을 동지들이여/그대의 투쟁으로 다시 피워라'

그해 5월에는 너무나 많은 청춘들이 산화해갔다. 강경대, 박승희, 천세용, 김기설… 그러나 너무나 조용한 5월을 맞는 지금, 그들의 이름은 아주 오래된 역사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인 양 낯설게 들린다. 무언지 모를 '망각의 강'이 놓여있는 것처럼.

91년 상반기부터 뇌물의유, 수서비리, 페놀오염사건, 물가고와 민생파탄으로 얼룩진 노태우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어떤 작은 계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4월26일(금), 백주대낮에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진 명지대 강경대(경제·1)의 사망으로 불붙여진 민중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4월 초까지 등록금투쟁을 벌이던 양캠퍼스는 그동안의 싸움의 성과로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또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라 교정의 분위기는 훈훈도되어 있었다. 명지대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한 총학생회장 연행 규탄 시위도중 한 새내기가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은 외대인의 피끓는 분노의 불을 당겼다. 당일 밤 외대에서도 사수대원 70여명을 포함한 1백여명이 연대로 집결했 된다.

27일(토)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대협 백만한도 결의대회'에 앞서 양캠퍼스는 각각 노천극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연세대에 모여 '노태우 타도'를 외치는 1만여명의 인간산맥의 한 봉우리를 이룬다. 플대포를 쏘아대는 전경에 맞서 학생들은 세브란스병원의 강경대열사의 시신을 지켜냈다.

다음날부터 5월 말까지 계속되는 가두투쟁에 오전에는 각 과별로 토론 및 외대출정식이, 오후에는 교외로 나가 성남, 신촌, 종로 등지에서 싸움이 계속된다.

29일(월) 서울캠퍼스는 6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마치고 가두행진을 한다. 회기사거리에서 역시 출정식을 마치고 나온 5백여명의 경희대생들과 합류해 "애국외대 자주경희 돌돌뭉쳐,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청량리 앞 광장까지 평화행진을 했다. 서울은 곳곳에서 나온 학생들과 시민들로 평화대행진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바로 이날이 전남대 박승희열사가 '전남대 2만학우 단결' '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날이기도 하다.

5월1일(수) '살인정권 노태우 정권 규탄과 세계노동절 102주년 기념대회 애국외대 출정식' 이후 역시 경희대생들과 함께 신설동 로타리까지 평화시위를 전개한다. 한편 용인캠퍼스는 이날 각과별 총회를 갖고 오후 1시이후 파업을 결의한 6백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해방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성남에서 가두평화시위를 벌였다. 이날 성남시위에는 상대원공단을 비롯한 성남지역 노동자 6백여명과 외대, 경원대, 신구전문대 등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 소속학생 '1천여명이 참가했다. 성남공단본부 앞에서 노동절기념집회를 갖고 종합시장을 거쳐 성남시청앞까지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거리에 서있던 시민들도 시위대열에 동참해 '해체민자당, 타도노태우'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계속되는 시위속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그만큼 민중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었다.

91년 당시 새내기였던 박형진(서양·영어3) 군은 "그땐 지금처럼 외대인이 다양하고 개별화된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친구를 보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는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라며 지금의 개인화되고 중층화된 현실을 안타까와 한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각단대학생회는 각종 행사를 개최했는데 서양어대는 '강경대열사 장례식기금마련 모금운동'과 '시국토론회'를, 사범대는 '일일찻집'을 학생회관1층 구내다방에서 했다. 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영화를 상영하는등 외대의 5월또한 무척 분주했다.

5월4일(토)을 '백골단 해체의 날'로 정하고 '백골단해체와 공인통치 중식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가 전국에서 27만명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은 '백골단 해체의 날'답게 서울시내 곳곳에서 백골단들이 무장해제 당하기도 했다. 이틀두고 한 제야인사는 "맨주먹의 국민들이 힘을 합하면 폭력으로 무장한 공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계기가 됐다"며 기뻐했다고.

한편 6일(월) 오후5시 서울캠퍼스 교수협의회실에서는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일동'이라는 명의로 이상준교수(영어과)를 비롯한 27명의 교수가 시국성명서를 통해 '비극의 책임은 노정권에 있다'고 밝히며 △백골단과 전경의 '부조건적 해체 △노정권의 퇴진 등을 천명해 제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기도.

9일(목)부터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와 평화시위, 그리고 청년학생들의 분신.

그러나 시인 김지하씨의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는 변절선언, 연세대 김동길교수의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냉소적 망발, 서강대 박홍총장의 "분신에 배후가 있다"는 책임지지 못할 발언 등은 분신한 열사와 노정권에 대항해 싸우는 시민,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정원식씨가 총리로 임명되고 이에 따른 임명철회 촉구, 경거정양의 죽음, 김철수열사 분신 등 여러 사건이 잇따랐다.

그러나 5월투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권의 의도에 철저히 이용되었던 '6·3 정원식 총리 서리 방문 함의 투쟁' 그리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은 노태우를 5월의 악몽에서 구해주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정권으로부터의 탄압과 도덕적 모욕을 받으며 열사의 죽음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외대는 어떠한가. 드물게 열리는 집회엔 2, 30명이 앉아있고 모두 도서관과 학원으로 분주히 달음질 친다. 과연 문민정부이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진걸까. 아직도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옥에 숨쉬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루연기 자욱했던 5월의 교정은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긴 휴식을 끝내고 동면에서 깨어나 봄을 만들어가는 외대인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숨바쳐 싸웠던 선배들과 열사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

<이옥선 기자>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음이란 그릇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론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고, 험준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산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삼양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住建, 식품, 사료, 住産, 화섬사업) ●삼양통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조선내화(유)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보판지주식회사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에이피에이 ●C한국삼양피아이에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의약연구소 ●삼양그룹식품연구소 ●양정원 ●수도원학원

'사립대학 과연 재벌재단 필요한가' 공개토론회 지상중계

보도기획

사학재단 대학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김선종 성대 교수>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재단의 학교재산 유용등으로 진리의 상아탑이 돈놀음판으로 얼룩지면서 그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정부차원에서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학에서 재단은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이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차라리 재산을 유용하는 재단이 없었더리면 사학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았을 것이다. 본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재단이 아닌 학생들이 먼저 투지계획을 제시하는 서글픈 현실이고, 중흥외대 건설은 학생들의 재단을 상대로 하는 외대발전 부쟁이 없이는 요원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흙 구덩이에 빠져 버린 대학을 살려내기 위해 사립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대학법인은 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립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립대학 과연 재벌 재단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에서 지난 4월29일 성대 교수회관 4층 종합세미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성균관대학 김선종 교수(교육학)가 하였으며 토론자로 조선대 이중범 교수, 상지대 김대식 교수, 상명여대 박거용 교수가 참가하였으며 사회는 성대 양재현 교수가 맡았다.

먼저 김선종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립학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하는 학교이지만 사립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학교법인은 재산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데 재산소유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법으로 규제되는 법률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인 교육수요에 비하여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공급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 독지가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학의 설립육구가 왕성하였다. 그리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이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농후해지자 정부는 1963년 사립학교법을 제정하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왔다. 하지만 감독과 통제를 위해 18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입시부정과 학교재단의 비리를 방지하지도 못해왔고, 일부 관리들은 오히려 방조하거나 유착된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의 사학정책에 호응하여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발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학교법인이 탄생하였다.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전국에 걸쳐 총 287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삼육학원과 1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선인학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약 90%와 약 80%로 고등교육기관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비중이 시사하는 점은 사학의 발전없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의 발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이며 사학을 경여하는 학교법인의 책무성이 매우 막중함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학교육에는 특수성, 지주성, 공익성 등 3가지 원칙이 있다. 하지만 어느 대학 하나 건학이념과 정신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이 없다. 또한 지주성에 있어서도 학생 선발에 교육과정 편성, 공납금 결정, 교직원 인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제한을 받아왔다. 사학정책은 바로 이러한 3가지 원칙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채 표류하여왔고 상당수의 재단은 대학규모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왔다.

대학법인 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가?

사학의 재부구조를 보면 정부의 지원이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부금과 재단전입금이 대학재단이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는 비단 이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당시부터 정치인과 대학법인 책임자들이 야합되는 소위 정학유착의 밀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법인 이사들을 친인척 중심으로 구성해 놓고 그칠줄 모르는 탐욕을 부리는 삶들 바로 이들이 재벌재단 사람들이다. 이들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건물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부금이 전입금 보다 적은 것으로 많은 대학에서 밝혀졌다. 이는 원래의 숫자가 허위였든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종여받은 것을 비자금으로 하여 투지하였든지 둘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태이다.

대학 예결산, 교수·학생이 감사필요

신뢰잃은 재단, 재산공개로 거듭나야

부정행위 지적교수, 학교 명예훼손으로 재임용

탈락도…재임용제, 보이지 않는 위협효과

의문에 해답이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해답을 가름하는 원칙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첫째 대학 행·재정에 관련된 모든 주요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재단임원의 재산은 공개되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세째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평교수들과 직원들이 가능하면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내부통제의 순기능이 나타나도록 해야할 것이다. 네째 대학교육의 경비절감을 위한 공간활용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저수익성 기본재산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독지가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상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의 성격과 법인의 특성이 상이한 만큼 대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강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주제발표 내용에 따라 토론자들은 현 대학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위의 다섯가지 원칙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예결산 공개는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삼중 장부로 인하여 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평교수협의회가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심의, 의결권을 가지면서 예결산을 감사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 예결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도 현재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에 하는 것이 아닌 교수협의회서 직선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며 교수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 재임용제도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임용제도는 가시적으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보다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는 불안으로 인하여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치 5, 6공 당시 보도지침으로 인하여 기자들 스스로 입을 다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재단임원의 재산 공개는 사립학교법은론 한계가 있겠지만,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교육의 가장 큰 수혜지이므로 그 댓가가 마땅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기업의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다른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썩은 물을 맑고 깨끗한 물로 바꾸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대학부>

◇ 외대발전 이것부터-단대발전안

동·서양어대/사범대

외대발전의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 각 과별, 단대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국어 교육이 타 대학에서도 활성화되고 있고 어학 하나만으로 더이상 본교의 특성을 살릴 수 없을뿐 아니라 지역학, 문학 분야 등 다방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특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각 캠퍼스 특성에 맞게 단대별 중기발전계획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편집자>

외대를 대표하는 동·서양어대의 경우 먼저 보다 폭넓은 교환학점제도와 교환학생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의 실정을 풍부하고 실증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연수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간 동안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회생을 감수하면서 부득이 휴학을 하고 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연수 기간동안 교류협정체결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류협정을 보다 구체화, 실질화하여 교환학생제도를 실시하고 연수기간 동안의 강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운드, 비디오 리이브러리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이루어내어 독자적인 어학동을 건립하여 어학실습공부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어학의 경우는 전공서적도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공도서관 건립으로 전공서적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어학실습위한 어학동 건립해야

사범대 전임교수 확충도 시급

물론 각 과별 사전 편찬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대한 구체적이고 전공적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공모임에 대한 배려와 동·서양어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민제등의 행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학, 지역학, 문학으로 교과과정이 개편되어야 하며 교과과정 개정위원회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범대의 경우 무엇보다도 전임교수 확충이 시급하다. 사범대만의 특수한 교과과정을 갖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어대의 교수가 사범대 강의를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교육학 과목의 확충과 필수화 그리고 교육학 교수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학교측의 성실한 교생대상학교 모색과 장기적으로 외대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직과목 이수지보다 사대생 우선적 교생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사안을 구체화,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인 교수, 학생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문벌에 나타난 난민

○…이문벌에 때아닌 소말리아 난민이 생겨 이를 보는 7300휴산인들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알아본즉, 재단의 민주적 개편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에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해 일주일이 넘는 단식으로 피골이 상접할 지경에 이른것.

여보소! 옷어른네들! 이제는 휴산인들이 기숙한 학교 사랑의 정신을 믿어들이시는게 건강에 좋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엽시는 부활한다. 강경대는 부활한다. 강경대열사는 부활했다(?) 거리에 흩뿌려진 열사의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신한국의 신촌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데.

지고하신 명지대 총장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리도 강경대 추모사업을 성대히 치뤄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더니 '파거형'바람을 맞았는지 오리발만 내밀었던 것.

그대여, 들으라 부활해 호통치는 열사의 울부짖음을.

○…왕산이 높이 위치해서 인지 등교하는 학생들은 항상 구름을 헤쳐야만 학교에 도달하게 된다는데.

이유인즉슨 아침마다 태우는 쓰레기 연기가 구름이 되어 전입로를 까득 메워 학생들 기분이 아침부터 찜찜한 것.

만화에서는 구름을 헤치고 나오면 궁궐이라도 있던데 우리학교는 그것도 아니니, 어르신네들, 구름을 없애주던지 궁궐을 지어주던지 하나는 해줘야 인간적인 것 아니겠소이까!

○…게 가천선 하겠다던 안기부가 '제비뽑 개못준다'는것을 중명해 민초들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시연인즉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이던 안기부의 정부부처 민간인 사찰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계속 정부부처를 들락날락,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아온 것. 앞가리고 아웅하기도 유분수지, 비굴한 사냥개 노릇을 계속하면, 그대 안기부, 복날 개신세가 됨을 명심하시압.

○…<어제뉴스>

흡산 어러분!

긴급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왕산골 최대숙원인 지긋지긋한 교통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대운동장아래 빽빽이 들어차있는 40여대의 버스가 연중무휴로 운행한다고 동원어르신네가 측근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뉴스>

어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정에 들어차있는 버스는 모두 폐차임을 밝힙니다.

교통난 해결, 사실무근

비둘기 게시판

왕산골

■전화카드 수리 중

고장난 전화카드를 대생협에 맡기시면 수리해 드립니다. 어문관 202호로 오세요.

-대학생활협동조합-

■제7회 부총장배 테니스 대회

일시 : 5월 12일~14일
종목 : 남자단식, 복식, 여자단식,
접수기간 : 5월 7일(금)까지
접수장소 : 학생회관 416호

-테니스부 ACE-

■제7회 부총장기 야구대회

일시 : 5월10일(월)
신청 : 5월4일(화)까지
접수장소 : 학생회관 309호

-야구부-

■봄농활 갑시다

기간 : 5월 21일~23일까지 2박3일
장소 : 경기도 여주군 일대

-민족서대 학생회-

■신입회원 모집

태평소, 관소리, 굿, 가야금, 단소을 배우고 싶은 분은 어서 달려오세요. 학생회관 2층 4453호입니다.

-민족문화 연구회 비나리-

■돌컴인들의 체육대회

일시 : 5월5일(수) 10시
동아리방으로 모입시다.

-돌 컴-

■사진전 개최

내용 : 남태평양 뉴기니 정글탐험 풍물사진전
일시 : 5월 3일~15일
장소 : 왕산, 이문

-외대산악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제(월)가 경옥이의 생일이었어요. 봉봉한 설치럼 항상 넓은 마음 갖기를 바래요.

-마인 92 일동-

■찾습니다

4월 30일 학생회관 식당에서 까만색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학생회관 2층 학보사로 가져다 주세요.

이문벌

■찾습니다

여지용 카과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학생회관 2층 기자실로 가져다 주세요.

분실일시 : 4월 15일경
분실장소 : 학생회관 앞 수돗가

■한교과 모꼬지

참다운 어머니의 품 한교과 이쁜 새내기들이 모꼬지 간대요. 가서 뽀다지게 놀고 오지.

기간 : 5월 5·6일 장소 : 강촌

■생일축하

4월29일 대학에 들어와 첫번째 맞는 학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93 영어과 D반-

■전국아랍어과 대동제

대동제가 드디어 기회 중반에 돌입했습니다. 아로와 여러분… 우리 한번 잘 해 봅시다.

-93 A. K가-

■축하합니다

교지편집위원회의 다소 늦어진 31호 교지 발간을 왕 축하합니다.

-제5대 언론협의회-

동문회

(왕산)

■대원, 모두 모이자(남고, 여고, 외고)

일시 : 5월7일(토) 5시30분
장소 : 송차장 매직
이웃 : 생사확인
회비 : 10,000원(단 93은 공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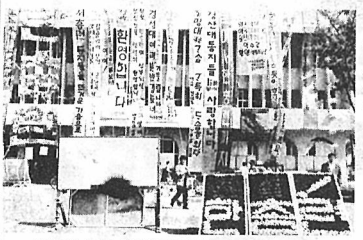
(이문)

■상문, 은광

일시 : 5월7일(금) 5시
장소 : 시계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창립

조국 통일, 학원자주화 위한 진군 결의



지난 4월 27일, 창립대의원대회를 가진 전북대에는 각 대학에서 써온 축하플래카드로 홍수를 이루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창립대의원대회가 지난 25일(일) 부터 3일간 전북대에서 열렸다.

한총련(건) 소속 8개지역, 1개 특별지구, 총 26개지구 1백80개 대학 1천6백여 대의원중 1천여명의 대의원을 비롯해 4천여명의 학생들이 이번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

'한총련과 전북도민이 함께하는 새기운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개막제에서 축하인사로 출연한 본교생 임수경(시학·불어4) 양은 "전대협의 지랑찬 역사를 계승한 한총련의 건설을 역대 전대협장님들과 함께하지 못한게 아쉽다"며 정부의 가식적인 양심수 석방조치에 대해 어이없음을 토로했다.

대의원들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위해 백만학도가 하나되어 진군하자'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하고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총노선과 통일방안을 확정·결의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학생운동 역사상 최초로 직접선거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군을 제1기 한총련(건) 의장으로 선출하고 3천여 학생들의 환호성과 함께 옹립식을 거행했다. 한총련(건)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용군은 "한총련(건)은 진정 백만학도의 생활·학문·투쟁의 구심으로 우뚝서서 6년 전대협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겠다"며 "당면 5월투쟁으로 김영삼정권이 보이고있는 개혁의 본질적 한계를 폭로하고 반미자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힘차게 밀어나갈것"이라며 취임인사를 했다.

또한 한총련(건)은 제1기 한총련 출범식을 오는 27일(목)부터 29일(토) 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행사장은 동대문운동장에서 숙소는 고려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대회 중간에는 그간 전대협 열사들의 추모제와 한총련(건)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에 문익환 목사의 강연, 전북지역학생들의 문화공연등이 펼쳐졌다.

외학정조, 토론회 개최

진보진영 진로 논의

서울캠퍼스 외학정조는 지난 4월23일(금) 오후5시 대학원강의실(6104)에서 '이문동의 새로운 정치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외학정조를 비롯 학내 각 대중정치조직인 진학련, 비대위 등이 참여해 이후 현실정치에서 학생진보진영이 진보이데올로기 복권을 위해 학정조의 위상, 학원내 다양한 공동사업모색, 민중연대 활동등을 논의했다.

용인, 통번역 회원선발

11일까지 접수

용인캠퍼스 통번역연합회(건)는 제1기 1차 신입회원을 선발한다.

오는 11일(화)까지 접수를 받고 시험전형은 12일(수) 1차 필기(독해, 작문, 듣기)시험을 보고 2차 논술, 인터뷰 3차 면접으로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3일(목) 에 있게된다.

통번역협회는 아직 대학당국의 공식적 인준을 받지 못하고 지치조직으로서의 위상도 명확치 못한 상태이다.

후원회 총회 개최

박필수 회장 유임

지난 4월30일(토)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대학원강당(6105)에서는 본교 발전후원회 창립 2주년 정기총회가 이강혁총장 및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신임회장인준 및 후원회 활동사항 보고 등이 있었으며 임기2년의 본회 신임회장에 1대 박필수전총장(서양 영어54)이 유임되었다. 또한 후원회는 사업보고에서 그간 성공적인 후원회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액은 12억3천6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용인동연, 대표자 회의 열어

회칙개정, 신규동아리 인준 논의

동아리연합회는 상반기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지난 4월28일(수) 에 도서관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통과와 교비지급해설, 순·신규동아리 인준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회칙개정안은 각 동아리회장들의 2/3이상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교비지급해설에서는 각 동아리가 교비를 요구해 지급받은 내역만큼 행사후 지출영수증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해야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인준안에서는 준동아리에서 정규동아리로 인준받은 동아리로 기독학생회와 외비가다 그리고 광고계곡 등이 있고 신규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인준받은 동아리로는 5개 신규동아리중 '온누리'만이 해당되었다.

동아리연합회는 학술제를 총학생회와함께 오는 5월10일(월) 부터 11일(화)까지 열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4·19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외대발전, 4·19정신 계승 등 다짐

4월 19일(월)에 서울·용인 캠퍼스에는 각각 4·19기념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후 1시에 노천극장에서 집회를 가져 학생측이 주장하는 외대발전 요구사항에 대한 재단측의 답변과 성실한 수행을 촉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재단을 비판했다. 오후 2시부터는 4·19정신을 계승하고 아울러 외대발전을 위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경문에서 출발하여 수유리에 있는 4·19기념탑까지 약 11㎞를 뛰었다. 이날, 행정학과 학생들은 모두 허리를 끈으로 묶어 하나되어 완주하여 주목을 끌었다.

4·19탑에 도착한 학생들은 해 치솟은 왕산인 열전한마당'이 △셋째날에는 '아학기금 마련을 위한 왕산음악회'와 스승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 행사를 기획한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은석(인문·언어4) 군은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주점을 축소하고 최대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그 의의를 밝혔다.

4·19묘역에 참배를 올렸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같은 날 2시에 노천극장에서 4·19기념 집회가 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독재에 항거하다 숨진 수많은 학생들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자는 결의를 다진뒤, 오후 3시부터 마라톤을 시작하였다. 학생회관을 출발하여 왕산주유소까지 왕복코스로 뛰었다. 마라톤후에는 총장,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천선 축구경기를 열어 서로 가까와지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총장이 축사도중 언급하였던 학생과의 술자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캠퍼스에서 대회를 마친 후 소감을 발표했던 93학번들은 "서로 어깔어주면서 뛰으로서 외대인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의가 깊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휴강되지 않은 수업과 학생들의 참여의식 부족이 대회의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용인 한마음 축제, 12일 개막

어제 확대운위서 확정

용인캠퍼스 '왕산 한마음 대축제(이하 축제)'가 오는 12일(수) 부터 3일간 열린다.

이 축제는 그동안 대동제라고 불리던 것을 개칭한 것으로 지난 3일(월)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날짜별 일정까지 확정되었다.

날짜별로 일정을 살펴보면 △첫째날에는 개막식, 체육행사, 주민노래 한마당이 열리며 △둘째날에는 '왕산발전안 향

강경대 2주기 추모

사회과학학회 주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학회 중국어과 타오룹, 영어과 여명 등으로 구성된 강경대 추모사업기획팀에서는 지난 4월 20일 부터 28일까지를 강경대열사 추모2주기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강경대열사 추모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생회관 앞에서 일일주점을 개최했다.

추모사업을 준비한 한학생은 이번 추모사업에 대해 "점차 보수화되고 다양화되는 외대인에게 강경대열사 추모사업을 통해 잊혀져 가는 사회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노동절 기념집회 개최

전노협, 학생진보진영 주최로

지난 1일(토) 오후3시 1백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노협, 전교조, 업종회의 등 5개 노동단체로 구성된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조직위원회'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수도권지역 노동자·교사·학생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단병호 전노협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삼정권은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재벌위주의 성장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총련은 노동절을 맞아 천만노동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김영삼정권의 신지배통치방식을 노동형제와 함께 본질을 밝혀내고 각계각층 민중들의 민주대개혁의 요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한편 이에앞선 4월30일(토) 오후2시 학생진보진영 7단체 연석회의는 고려대에서 '1백4주년 노동절 정신계승과 반민중적 개혁정책 폭로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총련(건), 간부대회

단결투쟁, 모범 결의

경기지역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경기총련 (건))는 지난 4월23일(금) 부터 24일(토) 까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경기총련(건) 간부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간부결의대회는 경기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소속 10개학교,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소속 9개학교 1백60명의 대의원을 비롯, 각단대, 과학생회 간부 8백여명이 참석해 △93년 학원자주화의 방향 △경기총련 건설의 의의와 진로 △93년 구국운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경기총련 건설을 결의하고 의장으로 김성규(경희대 총학생회장) 군을 옹립했다.

중국어과 동우회

전공도서 기증

서울캠퍼스 중국어과 84학번 동기회(회장 오규열)는 학과 관련도서 16권을 수집, 지난 4월 26일(월)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동기회에서는 이후에도 도서기증운동을 계속 펼칠것으로 알려졌다.

서양어계열 교수 세미나

외대 40년 전망 등 토론

본교 서양어대·서양학대·사범대학교수들은 지난 4월22일(목) 오후3시 서울캠퍼스 시청각교육원 2층 세미나실에서 '93년도 춘계 서양어 교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외대 40년의 회고와 전망, 세계인의 의식구조 등에 대해 6시30분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세미나의 사회는 박철, 김성기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외시, 정병하군 합격

제27회 외무고시 최종합격자 발표가 지난 4월 17일(토)에 있었다.

본교에서는 정병하(87·독일어과) 군이 합격하였다.

학과움직임

◎서울 중국어과, 예술제 기금마련위한 하루주점 열어

서울캠퍼스 중국어과 학생회는 과회지발간과 예술제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지난 4월 28일(수) 학생회관앞 잔디밭에서 열었다.

◎서울 일본어·이란어과, 6·3수배자를 위한 일일호프 개최

서울캠퍼스 이란어, 일본어과 학생회는 지난 4월 21일(목) 학생회관앞 잔디밭과 필스호프에서 '6·3수배자를 위한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이날 수익금은 수배자들의 생활기금으로 쓰인다.

동아리 소식

◎용인 야구반, 오는 10일(월)부터 부총장기 야구대회 개최

용인캠퍼스 동아리 야구반에서는 제7회 부총장기 교내야구대회를 오는 5월 10일(월)에 개최한다. 5월 4일(화) 까지이고 20개팀만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용인 농구부, 대동제맞이 농구대회 개최

용인캠퍼스 농구부(PHOEBUS)는 지난 4월 26일(월) 부터 각과, 동아리 대항 농구대회 예선전을 시작으로 대동제 기간에 결선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 테니스부, 부총장배 테니스대회 열어

용인캠퍼스 테니스부 ACE는 오는 12일(수) 부터 14일(금) 까지 자연대 앞 테니스 코트장에서 부총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7일(금) 까지 학생회관 로비에서 직접 접수한다.

◎외대산악부, 뉴기니아 정글탐험 사진전 개최

외대산악부는 지난 2월 13일(토) 부터 한달여동안 남태평양 뉴기니아 정글탐험을 가지고 이에대한 사진전시회를 어제 3일(월) 부터 7일(금) 까지 양캠퍼스학생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 체육대회개최

클래식음악의 명문동아리 고전기타반은 지난 2일(일) 에 구성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사람

"인간대 인간으로서 만나자는 것이 저희들의 철칙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인지라 동정심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실천사랑'의 회장인 지재성(서양·영어 3) 군의 말이다. 실천사랑은 서울지역 '연세사회복지관'에서 원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89년 5월에 만들어진 실천사랑은 현재 회원이 80여명이나 돼 동아리로선 꽤 규모가 큰 편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시간에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방문해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의 학과공부를 지도해주고 글짓기, 풍물, 신문편집 등 원아들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길러 주는 여러가지 정서프로그램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91년 가을에 가입했다는 지군은 "처음에는 지희들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소 냉소적이었고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많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같이 생활하면서 차츰 정이 들고, 명랑해져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도 찾게 되었습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생색내기식의 자선활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재성군을 만나>

현재 서울지역에는 '사랑터' '아름' 등 실천사랑과 비슷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13개의 단체들이 있다. 이들 '서울지역 육아시설단체 연합'은 육아시설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점과 정부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족한 예산정책에 대정부 질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탓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의 보수도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군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방 같은 경우는 후원자가 없어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고 말한다. 원래 육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80%가 원칙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이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지군은 또한 "경제 성장면에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들 합니다만 그에 병행되어져야 할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인 실정"이라며 앞으로 연합활동을 통해 홍보·서명작업이나 대정부 질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학중에도 활동을 하는 실천사랑은 '시설활동'이라는, 방중에 4박 5일간 원아들과 같이 합숙을 하는 행사도 마련해 이들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꾸준히 찾고 있다.

"언말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만 생색내기식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원아아이들은 이런걸 제일 싫어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이죠"라며 원아들에 대한 사회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호소하며 말을 맺는다.

<이재우 기자>

하 계 영 어 연 수 안 내

1. 연수지역 및 연수대학 : 미국 서부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연수일정 : 1) 연수출발일정 : 1993. 7. 6. 13 : 30 김포공항 국제1청사 집결 예정
1993. 7. 6. 14 : 35 UA 808 김포공항 출발 예정
2) 연수지연도착 : 1993. 7. 6 San francisco 도착 예정
3) 연수활동 기간 : 1993. 7. 6-8. 12(약 6주간 예정)

3. 견학일정 : 8월 13일 : 버클리-요세미티-프레스노 견학
8월 14일 : 프레스노-라스베가스 견학
8월 15일 : 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 견학
8월 16일 : 그랜드캐년-L. A. 견학
8월 17일 : L. A. 견학
8월 18일 : L. A. 견학
8월 19일 : L. A. -호노룰루 견학
8월 20일 : 오하우지역 견학
8월 21일 : 호노룰루시내 자유시간
8월 22일 : 호노룰루-서울

4. 연수종료 및 서울 도착 : 1993. 8. 23. 15 : 50 국제1청사 도착 예정

5. 연수경비내역 : 1) 수업료 및 신청료 : $1,055.00
2) 숙식비(2인1실) : $1,510.50
3) 건강보험료 : $60.00
4) 업무추진 및 수속관리비 일체 : $300.00
5) 항공료 및 용 여행경비 일체 : $2,148.00
*예상 총 경비 : $5,073.50
(교재대, 편의시설카드비, 기숙사예치금 등 개인비용은 제외)

6. 여행구비서류 : 상담시 세부목록 배부 및 안내 받을 것

7. 공지사항 : U. C. B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교양선택, 제2영어. 자유선택 중 3학점까지 대체 인정됨.

8. 기타 : 1) 접수기한 : 1993. 5. 17(월).
2) 여권 및 비자발급은 일괄 처리함.
3) 소요되는 사진은 일괄촬영함.
4) 세부일정 및 여행경비를 사전 숙지하여 차후 의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5) 기타 자세한 것은 각 학생처에 문의할 것.
서울 학생처 : TEL 961-4034, 용인학생처 : TEL 0335-30-4033

학 생 처 장

'93년도 제1학기 대학원 학술강좌 안내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93년 1학기 학술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93. 4. 28-6. 16
=일시 : 매주 수요일 16시 (RADIM PALOUS교수 강연은 5월 25일(화) 16시)
=장소 : 대학원 418호

5월 19일 (수)	제목 : '제1회 파리-모스크바-북경 자동차 역전 경주 대회'참가기 강사 : 이재영 교수(한국외대 불어과) * 총16, 082Km의 거리를 27일 동안에 완주한 이재영 교수의 고난에 얽힌 경험담을 듣는다.
5월 25일 (화)	제목 : 우리시대의 정신(The spirituality of our era) 강사 : RADIM PALOUS 교수(체코 찰스대학교 총장) *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변혁을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신적 지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5월 26일 (수)	제목 : 여성의 정치 참여 강사 : 손봉숙 선생(한국 여성 정치연구소 소장) *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한다.
6월 2일 (수)	제목 :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 강사 : 조동일 교수(서울대 국문과) * 한국, 중국, 일본, 월남의 문학사 내용과 전개를 비교하여 논하고 비교문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
6월 9일 (수)	제목 : 중국 사회주의 맑시즘 재해석 강사 : 이희옥 연구원(한양대 중소문제 연구소) * 중국에서의 맑시즘의 위상과 중국식 사회주의를 검토한다.
6월 16일 (수)	제목 : 동양의 미학 강사 : 윤재근 교수(한양대 국문과) * 도가의 권위자 윤재근 교수의 동양미학을 음미한다.

=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읍니다.
=문의나 조언은 대학원 총학생회(961-444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발전위원회

1993. 5
대학원 총학생회

□영화평－K2

헐리우드가 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산

서구 자유주의, 과학중심지의 문화의 승리로 유추돼

근대까지의 서양 역사는, 인간의 지연에 대한 투쟁과 그 승리과정의 순화으로 연속되어 왔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마제란의 세계일주, 서구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그리고 이제 우주를 향한 끝없는 정복욕은 '해가 지지 않는' 서양문화를 창조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개봉중인 'K2' 역시, K-2라는 산을 정복하려는 두개인(남자)의 우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성취욕을 표현한 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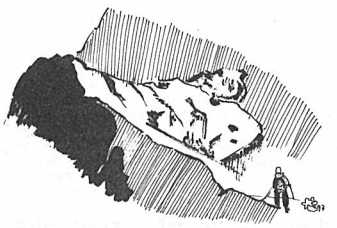
고도 28,000 피트에서 실제 촬영되며, 스텔트맨이 아닌 실제 배우가 3개월간의 등반 훈련 후 직접 산을 오르는 등 최대한도로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는 이 영화는 한스 짐머의 일렉트릭 기타 음악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평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내용을 살펴 보자.

전문 등반가는 아니지만 산을 좋아하는 두사내－테일러(마이클 빈), 해럴드(매트 크레이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는 K2등반을 일생의 꿈으로 삼는다. 우여곡절끝에 K2 등반팀에 합류한 두사람은 결국 정상에 오르지만, 하산중 해럴드가 부상당하고 테일러는 그를 버리고 가느냐, 같이 남아 죽느냐는 고민에 빠진다.

해럴드의 종용으로 홀로 산을 내려 오던 테일러는 조난당했던 죽은 동료의 장비를 가지고 다시 해럴드와 함께 하산을 한다. 힘진하여 죽음 일보 직전, 구출하려온 헬리콥터를 발견한 두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린다.

자, 이제 극장의 불은 밝아지고 우리는 K2에 대한 인상들－웅장한 K2 산의 신비스러움, 남자들만이 고귀한 우정, 벅찬 성취감(비록 대리 만족감이지만(^^))에 흐뭇한 박수를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와 함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의식에 깊숙이 각인된다는 것을 깨달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영화가 헐리우드적 특성을 지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념의 범인류화를 표방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이다.

우리는 'K2'를 단순한 산악 등반 영화가 아니라 헐리웃 이데올로기가 낳은 또 다른 '산업영화'류의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그 이념적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주인공의 직업을 살펴보면 테일러는 자유와 법의 수호자인 법률가이며 해럴드는 서구 과학의 기둥을 이루는 물리학자이다.

즉 이들은 자본주의와 과학합리주의로 상징되며, 그들의 성공적(?) 등반은 서구 문화 가치관의 승리로 어렵지 않게 유추된다. 비록 해럴드가 부상 당할때 테일러는 법최자를 이용해 부와 명망을 지향하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궁극적 실천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영화는 구출되는 두사람에게서 끝을 맺는다). 소수 민족에 대한 헐리웃 영화의 고정적인 편견이나 우월감 역시 여기저기서 지적할 수 있다.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K2의 등양인 셀파(: 등반 안내자 및 짐꾼)는 무지하고 돈만 밝히는 '미개인'들로, 주인공들은 그들 때문에 숱한 위기에 놓인다. 해럴드의 동양인 부인은 산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지 말 것을 호소하는 그저 착하기만 한 순응적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종에 대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감독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 화면상에서 그 극적효과는 미비해지고 만다.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K2를 표현한 것도, 인간의 '삶과 생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제시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감상 포이트는 K2라는 지연에 촛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거대하고도 신비롭게 K2를 묘사하곤 있지만 궁극적인 지연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단지 인간의 성취 대상으로 표현되는 이 산은 정복되기 위한 하나의 '배경'에 불과한 듯한 인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정, 가족 공동체, 협동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영화라고 하기엔 등장 인물들의 연결 고리가 너무도 영성하다. 두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배우(4명의 동료 등반가)들의 성격이 명확하게 창출되지 못했고 '생존과 죽음'에 당면한 인물로서는 주인공들의 연기표현 역시 부족한 감이 든다.

애했건, 지했건 간에 결국 그들은 K2 등반에 성공한다.

서구 자유주의 과학 중심주의 문화는 또 한번의 시험을 거치고 다시 한번 그 굳건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영화속에서 일 뿐이다.

여전히 헐리웃은 그 제도적, 이념적 K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중심을 이루는 산업으로서의 영화가 예술매체로의 영화에 대한 절대 우세를 지키는 현재 헐리웃 영화의 관점에 대해 제작 관행이 붕괴되지 않는 한, K2라는 벽을 점점 거대하게 다가올 것이다.

변 성 엽

(상경 · 경영3 서울캠퍼스 연합동아리 '울림' 회원)

파수대

외대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지난 3일(월) 서울캠퍼스에서는 비상학생총회를 갖고 재단전무이사 불신임을 선언했다.

<강인숙 논설위원>

□2천년대 외대의 모습 후편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들의 위령비가 세워져

자랑찬 모총련－모현기숙학생총연합－과 하숙집

주민들간의 방값 교섭이 진행중이었다.

모두들 2000년 들어 최초의 시험을 잘 치루었는지 모르겠다. 긴장됐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옛날얘기를 하나 하겠다.

아주 아주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다는 것조차 불온시 되었다. 아주 옛날에는 일본 칼을 찬 외국인 선생의 －지금은 각국의 외국인 교사가 사방에 깔렸지만－겁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옛날에는, 독재정권에는 굴하고 학생에게는 군림하는 선생님이 계셨다. 전교조라고 하는 의식있는 선생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지금 학생들이 외국인 교사와 자유롭게 각국어로 반말 씨가며 수업하는데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조금 옛날에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제'라는 걸 실시하자고 우긴적이 있었다. 그당시 어른들이 보기엔 세상말세였다. "감히 학생이…"하면서. 지금의 여러분은 그것이 생활화되어 잘 알겠지만, 그건 교사와 학생들간의 협조체제일 뿐이다. 우습게도 그당시 의식은 봉건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한때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표방하고 화려한 개혁을 단행한듯 했지만 진짜 알맹이는 건드리지 못했고, 과거에 하던대로 터뜨리기만 하고 해결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자부 에기가 나오는 것이리라.

내가 왕산에 다녔때 학교 주변 마을인 모현에서 자취를 한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사실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습기가 찼고, 밤이나 낮이나 연탄불을 피워야 했고, 아, 아직도 기억난다. 자유낙하식의 그 어둡던 화장실이！ 어쩌다 이문동 하숙집에 가게 되면 일단을 밟고, 원터치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화장실 변기의 물내려가는 소리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양변기면 무엇하리, 누우면 머리와 발이 벽에 닿는 좁은 방값이 왜그렇게 비싼지… 자취시절의 고생이 추억으로만 기억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현에 가보았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자랑찬 모총련－모현기숙학생총연합－과 하숙집 주인들간의 방값 교섭이 진행중이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 빼달라시던 주민들이 학생들과 진지하게 얘기하고 계셨다. 모현 자취인들의 10년 숙원이던 자취촌 건설이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 아직 학교측과 구체적인것들을 협상하는 단계지만. 하지만 재단과 독점계약을 맺고있는 상한기업이 제대로 지을지 걱정된다. 왕산의 건물들은 겉만 번쩍거리고, 공간활용률은 낮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부실건물들이었다. 후배들이여, 선배들에겐 목숨 걸고 수업받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회관에 지금의 늙어나는 동아리들을 수용할 방이 모자른다고 한다. 어린 동아리는 명수당에 천막치고 들어앉아 농성을 하고 있다. 중과가 되면서 늙어나는 학생수와 요구들은 생각않고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만 인상한 야속한 학교. 왕산에 위령비가 하나 더 생겼다. "교통사고로 죽은 학우들의 위령비" 자가용으로 등하교 하는 학우들도 늘고 모현이 거대화 되면서 당구장 차도 늘다보니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난폭운전과 파속을 단속하기 힘들어졌단다. 그동안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27명의 학우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사실 7년후의 미래는 아주 멀지않은 느낌을 주지만, 7년전의 과거는 아득히 먼, 그야말로 "옛날에는 말이야…"하는 구덕다리의 것처럼 들린다. 그런 옛날 얘기라 하더라도 후배들에게 지랑스럽게 말할만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의 옛날얘기를 마친다.

김선정

(서학 · 이태리어3)

□편지글－떠나가는 모현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동안 마음껏 사랑하자꾸나

후배들을 처음으로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3월이 지나가고, 그 후유증으로 부러웠던 4월도 이젠 머칠 남지 않았구나.

하나 둘씩 나의 곁을 떠나갈 너희들에게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마땅히 해줄만한 것이 없어 잘 쓰지 못하는 글이나마 몇자 적어본다.

유난히도 춥고 바람이 강한 왕산…, 이런 강한 바람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지켜냈던 우정이니만큼 너희를 떠나 보내는 아쉬움 또한 크구나.

지난 1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타인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웃고 싶지 않을 때에도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허식과 겉치레에 매달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다. 너희들과 함께였기에 행복했던 나날들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고 느껴지는 건, 그 안에 허물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겠지.

그저 선배들이 만들어주는 모임에 참석하면 그만이었던 것이,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짐행부－누가 참 싫어하는 말이지?－란 이름을 들러쓴 선배들의 역할을 해나가느라, 그동안 모두들 힘들었지? 철인도 아니면서 마치 철인인양 해야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 그런 정신적 ·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특히 나를－격려해주던 너희들같은 친구들이 내게 있음이 부척이나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나의 미니스커트를 청점조작이라고 우기던 광철이, 신기하게도 한쪽 팔을 들고 지던 승규, 내가 제일 부서워하는 개를 안고 달려와 나를 울리던 인권이, 불도 붙이지 않는 담배를 잘도 물고 다니던 현구, 너희들 주위의 어떤 모퉈 고난도 나의 웃음으로 누그러뜨기를 진정 바랬었다.

흔히들 말하더라. 대학의 문턱을 넘어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은, 비지니스적인 만남이리구…. 난 우리의 만남이 비지니스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정'이란 단어 하나에 걸린 필연의 만남이길 바래.

너희들, 12월달 기억나니? 대선운동한다고 매일같이 세미나하고, 광주 · 하남 · 성남을 오가며 캠페인하고, 90학번 모선배를 광주경찰서로부터 구출하겠다고 투쟁(?) 했던 날도 있었지. 한 과목 시험이 끝날때마다 명분을 붙여서 술마시던 일, '꿈의 방'에 모여서 밤 해먹구 낮잠잤던 일, 이때쯤 수경이와 나는 모현에서 출퇴근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서럽다며 모현촉 탈퇴를 결의했었는데…. 대선당일날 하남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뛰었던 일, 정모군이 나의 19번째 생일날 민주정부의 꿈이 깨졌다며 못마시던 소주를 3잔이나 마셔 모두들 그 우울함을 노래방에서 풀었던 일들…. 너무도 생생한 기억들이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졌었던 날들이었지. 요즈음엔 서로가 각자의 일에 파묻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안그래도 얼마후면 너희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데….

어리게만 느껴진－같은 나이면 정신연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4년 높대－너희들이 군대를 간다니 믿겨지지는 않지만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빈다.

3년이라는 시간…겉로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야. 자기만의 생활방식,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꺼다. 난 너희들이 지금의 순수함을 간직한 모범적인 예비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너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정의란 것을 사회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너희가 사랑하는 조국 ·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희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항상 상기하길 바라고.

그래…우리는 '아람어 배우기'라는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이기전에 착은 관심과 이해로 만난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따뜻하고 편안함 속에서 1년이란 기간을 보낸 것 같다.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베우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1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꺼야.

우리, 함께할 수 있는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꾸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쳐야겠다.

'너희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화창한 봄날, 작은 소연이가 큰 정성을 담아서 썼다－.

안소연

(동학 · 아랍어2)

입이 큰 외대인을 찾습니다

FBS 외대 가요제

머리를 감지 않았어도 가볍게 모자를 눌러쓸 수 있는 외대인
이빨사이에 고추가루가 끼어도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외대인
새옷을 입고 가다 흙탕물이 튀겨도 '씩' 웃을 수 있는 외대인
걸어서 갈지라도 한다발의 장미꽃을 그녀에게 선사하는 외대인
입이 크고 노래를 사랑하는 외대인이라면 더욱 좋겠죠

원서마감 : 5월 14일(금) 오전
신청준비물 : 완성된 악보 2매
예 선 : 5월 14일(금), 교양관 301호
본 선 : 5월 26일(수), 자연대 대강당
참가부문 : 독창, 중창, 그룹 등 기타
참가자격 : 외대생(타교생 포함)
참 가 곡 : 순수 창작곡(장르제한 없음)
시상내역 : 외대교육방송국(FBS) 어문관 207호
(0335) 30－4138

용인교육방송국(FBS)

영화 시사회

본보 문화부는 대한극장측과 협의하여 외대인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 대한극장 3층 시사실
작품명 : 그랑 부르(Grand blue)
특징 : 공짜임

영화를 좋아하는 외대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 대 학 보